

2025년
서울형모아어린이집
매뉴얼



2025년 ☆
서울형모아어린이집
매뉴얼





1.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개요	04
1)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이란?	05
2)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배경	05
3)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추진 계획	07
4)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방향	07
5)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구성원들	09
2.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개요	12
3.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자율 운영	14
1)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15
2) 공동체 자율 운영 방향	17
3) 공동체 자율 운영 내용	20
4) 공동체 자율 운영 방법	27
4.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지원	32
1) 공동체 지원 방향	33
2) 공동체 지원 내용	35
5.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실천 사례	62
6. 공동체 입소 대기 공동 조정 사례	116
7. 서식	126



1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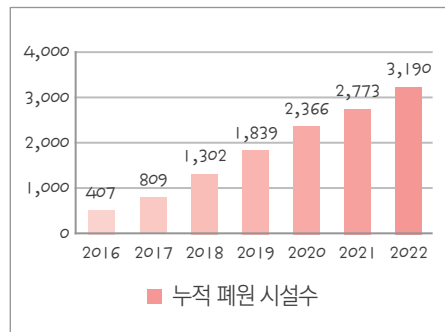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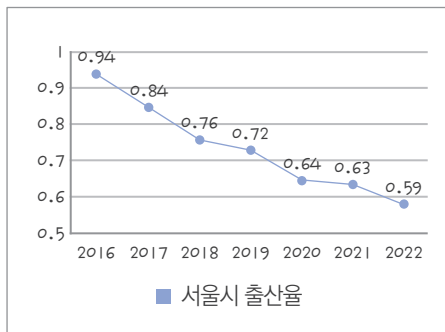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에 있는 국공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3~5개의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보육교직원과 부모, 아동 및 지역사회가 하나로 모여서 각각 운영되던 공유·다함께·생태친화 보육을 하나로 모아 운영하는 새로운 보육 모델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하고 물품을 공동구매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이로써 어린이집은 서로 상생하고, 영유아에게는 질적인 보육을, 부모에게는 높은 만족을 주는 미래지향적 보육 모델입니다.

2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배경

서울시는 20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늘리고 있으나, 여전히 국공립 유형에 입소(대기)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어린이집 유형별 수급 불균형 및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간 불균형한 입소(대기) 현황은 보육교사의 고용 불안 초래, 유휴 보육 공간 발생 등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합니다. 더불어, 출생률의 감소로 인한 연령별 보육 아동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육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간 공동체 단위의 협력적 운영 방식이 기초 지자체 단위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연구¹⁾에 따르면,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한 어린이집을 다닌 영유아는 0세~5세까지 연령에 적합한 양질의 발달적 보육·교육을 경험할 수 있고, 부모는 어린이집 이동 없이 만족스러운 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운영을 경험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현원 변동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김은설 외, 2020).

이렇듯, 상생·협력으로 보육 현안을 해소한 성공적인 사례를 서울시 내에 확산하여 어린이집 간의 보육 격차 해소,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저출산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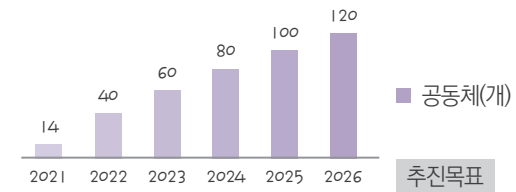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자료 제공

1) 김은설, 이정원, 조혜주(2020). 서초형 함께보육 법제화 방안 연구. 서초구·육아정책연구소.

3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추진 계획

서울시는 2021년 14개 공동체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하여 서울시 대표 보육 모델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보육 서비스 질 개선, 부모 만족도 및 운영 효율화 제고 등)을 토대로 전국 확산을 추진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참여 공동체는 선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1기, 2기, 3기, 4기 공동체 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4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방향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 '모아'는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어린이집이 함께 모인 것을 나타냅니다. 즉,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개별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계되어 함께 생각, 가치, 프로그램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간 공동 협력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보육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자발성'을 추구합니다. 누가 억지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갖는 힘을 믿고 성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은 학습공동체나 교사연구모임을 통해 영유아·놀이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을 논의하며,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보육과정을 운영하며 맞닥뜨리는 어려운 점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보육교직원들이 보육과정 운영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동체의 여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발성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협력'**을 추구합니다. 우리 어린이집만 잘 운영되도록 비밀로 정보를 지키며 나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여러 어린이집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동 활용하고, 심지어 교재교구도 공유하면서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부모의 협력도 우리 어린이집의 범위를 뛰어넘어 공동체로 확대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만 진행되었던, 부모의 재능 나눔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로 확대되기도 하고,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어린이집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 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우리 영유아들이 행복하기 위한 **'보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 2조, 제 3조). 이러한 보육의 중심에 있는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영유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탐구하며 재미있는 상상을 해나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변형하고 창조하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놀이의 가치와 의미를 존중합니다.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은 더 시간을 내어 연구하고, 고민하며 영유아와 함께 보육과정을 만들어가며, 보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오는 영유아의 발걸음이 날마다 신나고, 행복합니다.



5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구성원들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영유아

어린이집은 유형에 따라 운영하는 연령의 차이가 있어, 일정 연령 이후에는 원아가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놀이하며 지냈던 친구들과의 헤어짐, 새로운 기관에서의 적응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하나의 공동체에 구성된 3~5개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유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모래놀이터, 숲, 보육실 등에서 어린이집 간의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어울립니다. 영유아뿐만 아니라, 부모참여 운동회, 부모교육 등을 통해 여러 어린이집의 부모도 함께 어울립니다. '내 어린이집'을 넘어서 '우리 어린이집'이 되어갑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간의 정·현원을 공유하고, 어린이집별 반 편성 연령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 이동이 필요하다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이동하여 아이들은 새로운 기관에 낯설 대신 친숙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내가 속해있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 모든 어린이집의 구성원이 협력하여 만들어갑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협의하던 것을 공동체 내 여러 어린이집과 협의하는 과정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각각 운영하던 것을 공동 운영하면서 업무와 역할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경감됩니다. 각 어린이집의 강점을 살려서 질 높은 공동프로그램을 서로 협력하면서 만들어갑니다. 다양한 생각과 실천이 모여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내 모든 어린이집이 더욱 튼튼해져 갑니다.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부모

부모가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은 안내와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고, 어린이집의 다양한 행사와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하게 이루어질 때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과 어린이집 모두가 영유아에게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이은혜 외, 2003).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부모는 어린이집 운영 과정을 믿고 협력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가는 과정은 부모에게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어린이집별로 부모소식지, 부모교육, 운동회 등 부모 참여 행사를 통해 적극 소통하며 나눕니다. 영유아가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긴밀하게 소통하며 부모들도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해 어린이집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해주고, 공동체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부모의 재능 나눔을 해주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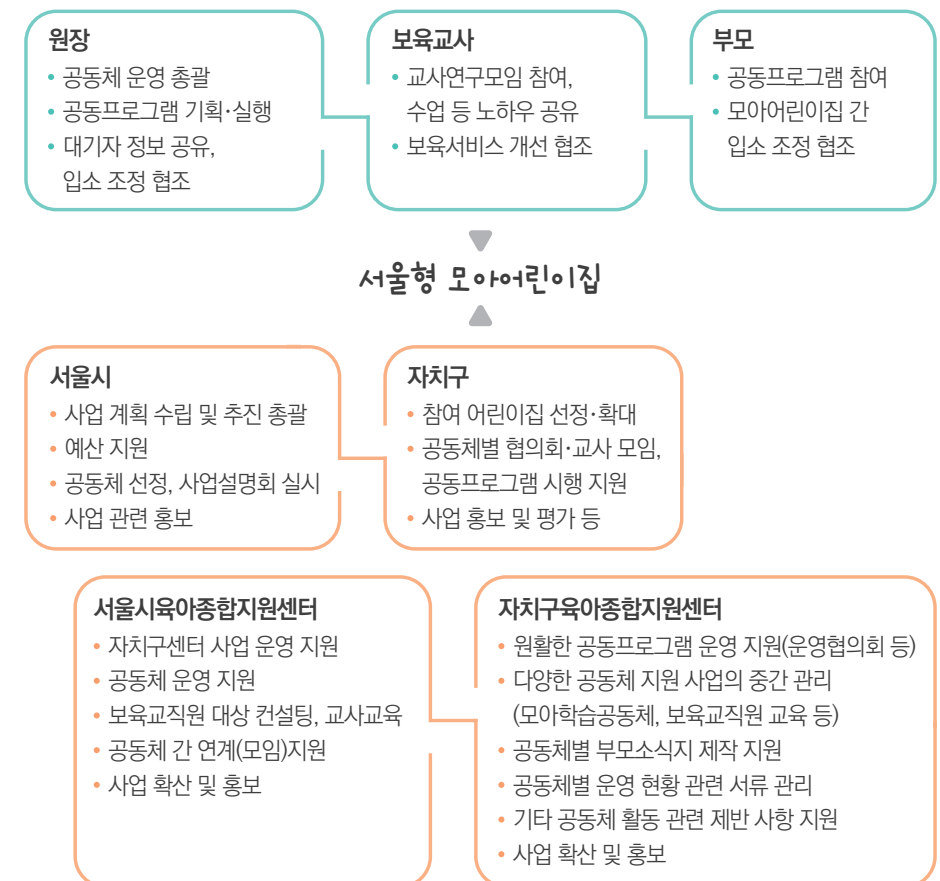
☀ 자치구 및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자치구센터)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참여 공동체 운영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협조와 협력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및 홍보 자료를 제작합니다. 공동체 협의 모임 운영과 어린이집 대기자 및 정·현원 관리를 지원합니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는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부모의 양육 지원 사업이 있으므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과도 연계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서울시 및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시범 사업을 거쳐 서울시 보육 신모델로 재설계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예산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더불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을 구체화하며 현장에 안착되도록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좋은 보육프로그램 등 아이디어가 교류될 수 있도록 공동체 간 교류와 협력도 지원합니다.

요약 정리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공동체 자율 운영’과 ‘공동체 지원’으로 나뉩니다.
 ‘공동체 자율 운영’은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공동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공동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운영협의회와 교사모임을 진행하며, 때로는 공동체 전체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자율 운영’을 원활히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과 같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공동체 간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리더모임을 운영하는 등 ‘공동체 지원’을 합니다.

공동체 자율 운영

※사업 운영 시기와 관계없이 지속 운영됩니다.

단계	내용
1~3월	- 공동체 구성 - 참여 공모 신청 - 사업 안내 참여 - 공동체 BAND 가입 - 공동체 실천계획서 수립 - 공동체 내 역할 분담 - 공동 운영위원회 실시
4~11월	- 운영협의회 운영 - 교사모임 운영 - 공동프로그램 운영
12월	- 해당연도 운영 내용 평가 - 다음연도 반영 사항 논의

공동체 지원

※운영 지원 내용은 연차별로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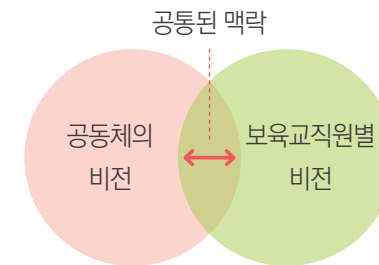
단계	내용
1~3월	- 참여 공동체 공모 및 선정 - 해당연도 사업설명회 실시 - 실천 계획 수립 워크숍 실시 (5기 공동체) - 공동체별 BAND 개설 및 가입 안내 - 공동체 운영 관련 서류 안내 및 회신
4~11월	- 보육교직원 교육 실시 - 원장세미나 지원 - 교사 소그룹 워크숍 지원 - 모아데이 운영 지원 - 멘토-멘티공동체 운영 지원 - 사례 공유회 실시 - 리더 모임 실시
12월	사업평가회 실시



1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공동체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²⁾으로 정의하며, 공동체 의식은 공동으로 소유, 관리, 이용하는 물질 기반과 하나의 목표 지향, 일체감과 같은 심적 기반으로 형성됩니다.³⁾⁴⁾ 즉, 단단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질 자원 공유를 넘어서 구성원 간의 심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적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맥락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비전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된 부분이 많을수록 구성원과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 일치되고, 구성원에게 내적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 결과, 구성원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신뢰 문화가 형성됩니다. 점차 구성원과 리더의 심적 기반이 마련되면, 연대 의식이 강해지며 공동 실천 및 책임까지 이뤄집니다.⁵⁾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심적 기반은 일방적인 강요보다 쌍방향의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고, 구성원들이 일하는 목적과 의도에 공감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네이버 어학 사전. 공동체(<https://ko.dict.naver.com/#/entry/koko/b6ac65e51a9e420791a7408e6cc6fed9>). 2023.4.10.

3) 김수영 외 3인(2014). 마을공동체 형성의 인과구조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49집. 343~345쪽.

4) 김미연, 김인설(2018). 마을지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적 경험과 의미, 그리고 한계. 문화정책논총. 제 32집 1호. 112~117쪽.

5) 김승수.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2023.2.22.

그러기 위해 생각을 돕는 질문을 주고받고, 의견 존중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맥락이 다름을 이해하고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이 선행되면 좋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해와 공감의 생기기면서 변화와 참여, 협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3~5개의 어린이집, 더 작게는 다양한 아동관, 보육상을 갖고 있는 다수의 보육교직원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에,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인 비전을 정립하지 않는다면 표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크게 원장과 교사로 나뉘지만, 각자가 정립하고 있는 아동관과 보육상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보육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통된 맥락을 넓혀가야 합니다. 비전에 기초하여 정립된 계획을 실천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지속적인 실천과 변화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체는 여러 구성원이 함께 참여함에 따라 업무가 일부 구성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해하던 배의 무게 중심이 쏠리며 방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을 나누어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2 공동체 자율 운영 방향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간 공동 협력을 통해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높여 어린이집 수급 균형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 부모의 이해와 협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내고 싶었던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공동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동일하게 신뢰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을 함께 향상시켜야 부모가 더욱 신뢰할 수 있겠지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자발성'과 '협력',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의 가치를 기반으로 '내실화', '지속성', '유기적 연계',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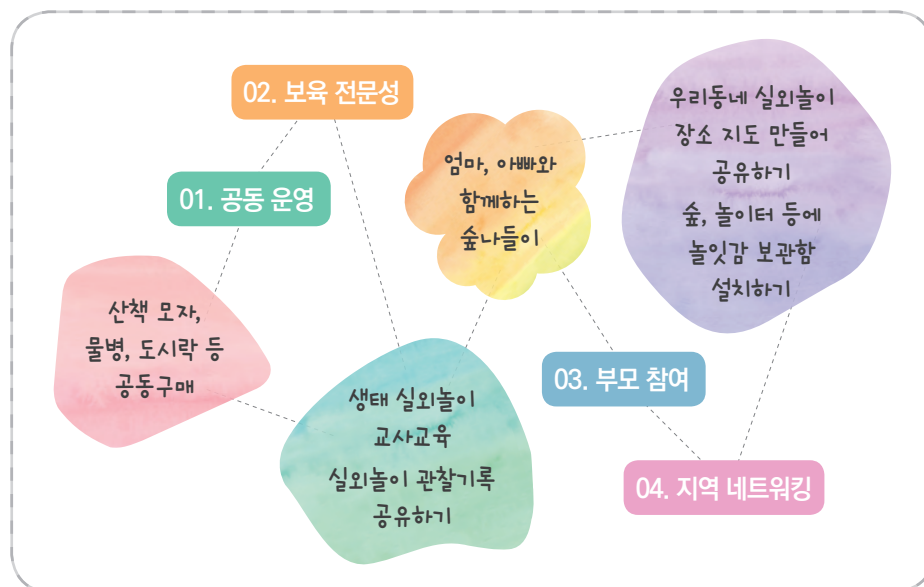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보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보육의 질은 여러 요소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질적인 보육과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육프로그램을 실행해보고, 다른 어린이집의 동일 연령 영유아들은 어떻게 놀이했는지 등 놀이 관찰과 기록, 평가를 나누는 과정에서 놀이의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놀이 지원 방안을 생각하며 내실을 다집니다.

즉,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적인 연구와 실천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질 높은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원동력이 되며, 이에 더해 보육전문가인 컨설턴트의 지원으로 보육과정의 실천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진정한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들의 목적 의식과 에너지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교사는 돌봄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관계 안에서 학생과 교사는 협력하며 교육 목표를 만들어 갑니다(넬 나딩스, 교육철학)6"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가 지속·확대되도록 지원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흥미를 발견하고 놀이를 통해 전인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는 일회성 행사보다 내실 있고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세부 분야 - 공동 운영, 보육전문성, 부모참여, 지역 네트워킹 - 간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합니다. 한 공동체로 함께하는 어린이집이 공동프로그램을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가 각각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망이 서로 연결되어 뻗어가듯이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생태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공동프로그램은 4가지 분야의 실천 계획을 모두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강점과 특성을 살려 중점 분야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선정한 공동 프로그램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실천계획서에 작성하여 공동체 내 모든 보육 교직원과 공유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공동프로그램은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특성과 지역적 특색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동안 각 원에서 운영해 왔던 특색 있고, 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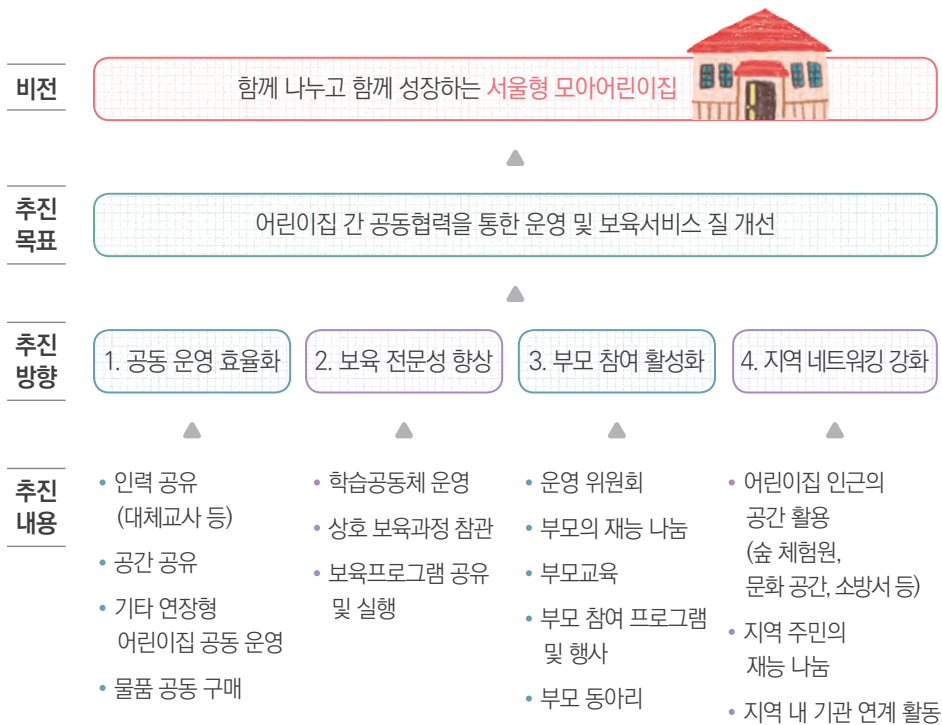
요약 정리



6) UNESCO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55쪽.

3 공동체 자율 운영 내용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공동 운영 효율화', '보육 전문성 향상', '부모 참여 활성화', '지역 네트워킹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 방향에 따라 공동체에 속한 어린이집이 서로 협력하며 다양한 공동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1 공동 운영: 각 어린이집에 있는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을 공동체 내 어린이집 간 공유하여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합니다.

공동 구매	- 상시 사용하지 않고 부피가 큰 교재교구(예시: 에어바운스)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어린이집별 일정을 나누어 사용 - 단체복, 가방, 산책모자 등 공동으로 구매 - 공동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 물품 등을 공동으로 구매
보육교직원 공유	- 어린이집별 운영 일정과 상황에 따라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 인력 공유 -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공동체 내 다른 어린이집에서 공동프로그램을 진행 - 입소 조정을 위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한 영유아의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원장이 방문 지원 - 형제자매가 공동체 내 서로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오후 산책이나 바깥놀이 시에 한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여 보육하고 하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
공간 공동 활용	- 실외놀이터, 텃밭, 놀이실 등 어린이집 내 공간 공동 활용 - 공원, 유휴공간 등 지역사회 내 공간 공동 사용
공동 운영	야간연장반, 연장반, 휴일보육 등을 공동체 내 어린이집끼리 돌아가며 운영하여, 각 어린이집 소수 아이들로 운영되던 연장보육을 함께 운영
자원 공유	각 어린이집의 자료, 교재교구, 물품 등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



02 보육 전문성: 보육교직원의 역량은 보육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동체 운영을 통해 보육과정 운영,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학습공동체 등 운영	- 교사들이 놀이 매체를 먼저 경험하고 연구하는 모임 - 놀이를 진행한 후 교사 간 놀이 기록, 관찰, 지원 내용 등 공유 - 어린이집별 동일 연령 담당교사 간 놀이 실천 나눔 모임 - 영유아 존중 인권 교육 등 교사 워크숍 함께 진행
어린이집 간 상호참관	- 각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프로그램 운영 참관 - 연령별 놀이 기록, 관찰 기록 등 참관 - 어린이집 간 개방을 통해 보육과정 운영 노하우를 나누고 상호 독려
어린이집 간 보육 프로그램 공유 및 실행	- 산책, 바깥놀이, 운동회 등 보육프로그램을 동일 장소에서 함께 진행 - 동일한 주제와 매체를 활용한 보육프로그램을 각 어린이집에서 진행 후 공유 - 텃밭 작물을 어린이집별로 나누어 심고, 재배한 작물을 공유



03 부모 참여: 공동체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 부모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어린이집 - 부모 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형성합니다.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을 공동으로 지원하거나, 부모의 재능 나눔 등을 통해 함께 키우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공동체 내의 부모 참여와 협력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어린이집 운영에 원동력이 됩니다.

운영 위원회	- 공동 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경험과 의견을 나눔 - 신학기 어린이집별 반 편성을 조율하는 공동 운영위원회 운영
부모 재능 나눔	- 동화책 읽어주기, 요리활동 지원 등 부모의 재능 나눔 - 부모가 함께 모여 양말목 공예로 바구니 만들기 등
부모교육	- 자녀의 성장 발달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양육 방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진행 -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 자녀를 존중하는 훈육 방법 등 부모 자료 배포
부모 참여 프로그램	- 바깥놀이, 산책, 간식 및 식사시간 등 일과 중 부모가 도우미로 참여 - 공동체의 바자회, 세시잔치, 음악회 등 행사에서 부모 참여
가정 연계 프로그램	-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을 가정과 연계하여 진행 - 어린이집에서 기르는 동·식물을 가정에 분양 -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에 활용할 자료를 가정에서 만들어 오도록 협조 요청

04 지역 네트워킹: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영유아의 풍부한 경험을 확장하고, 지역사회와 적극 교류하고, 협력하여 공동체적 협력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의 주변 환경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기관 연계	• 공동프로그램 활동 후 음식, 물품 등을 지역 내 기관에 나눔 활동 • 공동체가 함께 소방서, 박물관 등 지역사회 기관 방문, 연계 활동
지역 공간 활용	• 공원놀이터 등 지역 공간을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지역 주민에 알리고, 협조 요청 • 구청과 연계하여 유아숲체험원에 공동 놀잇감 보관함 설치
지역 주민 연계 활동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아나바다 장터, 미니 캠페인 • 텃밭 팻말 제작 등 지역 주민 재능 나눔 활동



요약 정리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별로 실천 내용을 논의하여 운영해 갑니다. 4가지 분야는 실천 가능한 사례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Tip!

1. 융통성 있는 실천 계획 수립

- 공동체가 지향하는 모습인 **비전과 핵심 가치**에 기초하여 공동체 운영의 내실을 기합니다.
- 공동체 운영 과정에서 기존 계획된 프로그램 확장 등 **수정·보완 가능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 공동체 실천계획서와 어린이집별 연간계획서와 비교하여 **더할 것과 뺄 것**을 검토하여 융통성 있게 조절합니다.

2. 구성원 간의 공동프로그램 실행 내용 공유

- 실천계획서(보육교직원), 부모소식지(부모) 등을 활용하여 **구성원 간의 공동체 운영 현황**을 나누고 방향성을 맞춰 갑니다.



4) 공동체 자율 운영 방법

★ 공동체 내 구성원 간 업무 분담 명료화

툼니바퀴가 맞물리듯 원활한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명료한 업무 분담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지속성 있는 운영을 돕습니다. 업무 분담을 위해서는 공동체 운영에서 요구되는 업무 내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기회의, 부모소식지 제작, 공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 잘하니까”, “△△가 해 봤으니깐”과 같은 이유로 한 쪽으로 집중되는 업무 분담은 당장 문제 해결에 도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치거나 불만이 생기는 등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과 분배의 과정을 갖도록 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실제 공동체에서 진행되었던 사례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효과적인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리더 원장
(‘22 회계 담당)



회계 담당
(‘23 부모소식지 총괄)



학습공동체 총괄
(‘22 리더 원장)



부모소식지 총괄
(‘23 리더 원장)



실천보고서 총괄
(‘22 학습공동체 총괄)

공동체 내 여러 업무는 원장과 교사가 나누어 분담합니다. 업무별 담당자를 순환 지정하여 동일한 업무 부담을 지속 경험하지 않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체에서 합의된 주기(예: 분기별, 반기별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리더 원장과 교사는 연 단위로 변경하기를 권장합니다.

업무 순환 과정에서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게 되니 배려와 연대 의식이 강해집니다.

★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회의

한 공동체로 묶여 협력해 나갈 공동체 내 보육교직원 간 모임입니다. 경우에 따라, 지역사회와 협력을 위해 관련 지역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01 운영협의회

- 횟수: 월 1회 이상
- 시간: 공동체 내 협의 후 결정
- 내용
 - ① 공동프로그램 운영 논의
 - ② 보육교직원 교육
 - ③ 어린이집 간 참관 계획 수립 및 진행
 - ④ 어린이집별 역할 분담
- 장소: 공동체 내 어린이집, 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결과 공유: 공동체별 BAND 등 소통 창구를 활용한 공유

※ 공동체의 운영 방향성을 맞추기 위함으므로, 업무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02 교사모임

- 횟수: 월 1회 이상
- 시간: 공동체 내 협의 후 결정
- 내용
 - ① 공동프로그램 운영 논의
 - ② 실천계획서에 따른 세부 실천 내용 선정
 - ③ 교사모임 대표교사 선정
 - ④ 보육교직원 교육
 - ⑤ 어린이집별 역할 분담 및 추후 일정 논의 등
- 장소: 공동체 내 어린이집, 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결과 공유: 공동체별 BAND 등 소통 창구를 활용한 공유

※ 공동체의 운영 방향성을 맞추기 위함으므로, 업무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공동프로그램 운영 관련 회의는 운영협의회, 교사모임 형태로 주로 진행되나, 회의 안건에 따라 회의 참여자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장과 교사, 원장과 교사 그리고 자치구청(또는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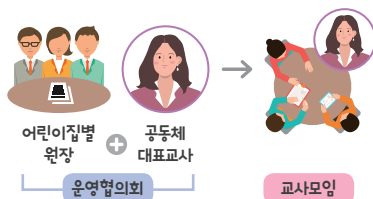
〈예시〉



Tip!

 정기 회의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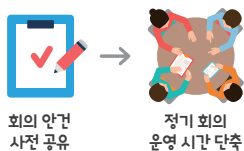
1. 운영협의회 - 교사모임 중간 역할



교사모임의 대표교사는 공동체 운영의 큰 그림을 설계하는 운영협의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프로그램 협의의 방향과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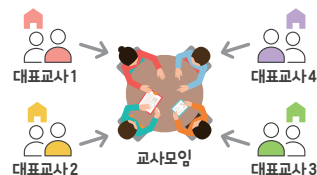
대표교사는 교사모임에 운영협의회 내용을 전달하고, 방향에 맞추어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대표교사의 중간 역할은 협력과 체계적인 운영에 도움을 줍니다.

3. 사전 안건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바쁜 보육 일과 중에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의 전 안건을 미리 공유합니다. 참여자들은 안건에 대한 원별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 회의에서 나눕니다. 그 결과, 회의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표교사 외 일반 교사 동반 참석을 통한 소통 활성화



교사모임에 어린이집별 대표교사 외 일반 교사도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참여하면 회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명료해지고, 생각을 함께 나누니 계획도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4. 회의 일정 또는 장소의 정례화

〈예시〉



회의 일정을 정례화하면 월별 계획 수립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일정을 계획하므로, 정기회의 참여율도 높아집니다.

* 부모소식지

공동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부모소식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나눕니다. 부모 소식지의 양이나 화려함보다 아이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반응에 집중해주세요.



비가 오면 또 다른 어느 날 아이들은 **늘 걷던 길 위에 생긴 물웅덩이를 발견**하고 신기한 듯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물웅덩이에 비친 얼굴을 탐색합니다.

아이1: 물 속에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의 말에 다른 놀이를 하던 아이가 '어디!' 하며 달려와 물웅덩이 속을 바라봅니다.

한참 동안 놀이하던 한 아이가 떨어진 나뭇잎을 가져와 물웅덩이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아이2: 히히, 배 갈아 배!

아이3: 나는 작은 나뭇잎 배야!

아이1: 배가 진짜 많아졌어!



아이들은 다양한 크기의 나뭇잎을 가져와 물웅덩이에 띄워봅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돌아갈 시간을 '**우리 배 주차하고 가자!**' 라고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나뭇잎을 물웅덩이에 가지런히 놓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비가 오는 날에 아이들은
또 어떤 놀이를 어어갈지 궁금해집니다.**

※ 2021년 서초놀이자람공동체 부모소식지 중 발췌





1 공동체 지원 방향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는 서로 다른 보육 환경에서 운영해 온 3~5개의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합의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 운영하지만, 어린이집별로 수립한 연간 계획과 병행하여 운영되면 보육교직원의 업무가 부담되고, 영유아를 관찰하며 내실 있는 보육과정 운영에도 한계가 생깁니다.

공동된 비전 정립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한 원동력입니다. 워크숍 등을 통하여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찾고, 비전을 공유하도록 지원합니다. 비전 공유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향한 동력이 되어, 함께 일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동체 실천 계획과 어린이집별 연간 계획은 공동체의 비전이 반영되어 공동체별로 다양한 색깔이 드러나게 되고, 본질에서 벗어난 계획은 과감하게 제외하며 내실 있게 운영됩니다.

각자 출발한 철학과 배경은 다르지만 생태친화 보육과 다함께 보육은 ‘아이가 행복한 보육’이라는 대전제 아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친화 보육과 다함께 보육의 통합을 고도화하여 지원하고, 운영 주체도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생태친화 보육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기후 위기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지속성 있는 실천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또한, 개별어린이집 단위로 진행되었던 다함께 보육을 공동체 단위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5개의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자연스럽게 학습공동체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개정된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에서도 학습공동체를 강조하듯, 질 높은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공동체 내 학습공동체가 안착되도록 지원합니다. 원장세미나를 기초로 교사 대상 컨설팅을 통하여 보육과정 운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다각도에서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간 협력뿐 아니라 부모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공동체 내 다른 부모와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상호 연대는 깊어집니다. 이를 위해 '돌봄과 육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요약 정리



비전 수립을 통한
공동체의 방향성 구체화



공동체 운영 초기
단계 지원 강화



자립공동체 - 기존공동체
간 교류 활성화



보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지원 지속



대상 확대를 통한
사례 공유회 활성화

2 공동체 지원 내용

1~2월

* 참여 공모 및 대상 선정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참여 희망이 있는 공동체 모집을 위한 공모를 안내하고, 대상을 선정합니다.

1. 참여 공동체 공모 안내



2. 자치구 및 어린이집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서울시 주관)



3.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4. 당해 연도 참여 공동체 선정

※ 공모 시 고려 사항

- 어린이집 부모에게 사전 안내 및 협의 후, 인근 어린이집(3~5개소)과 공동체 구성
- 서울시에서 안내한 공모 기준을 토대로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의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

2~3월

★ 사업설명회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참여 대상이 선정된 후, 당해 연도 사업 운영에 대한 안내가 진행됩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사업 이해 도모를 위하여 교사 대상 사업설명회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설명회가 왜 2번 진행되나요?

A. 사업설명회는 진행 시기에 따라 대상 및 내용이 다르며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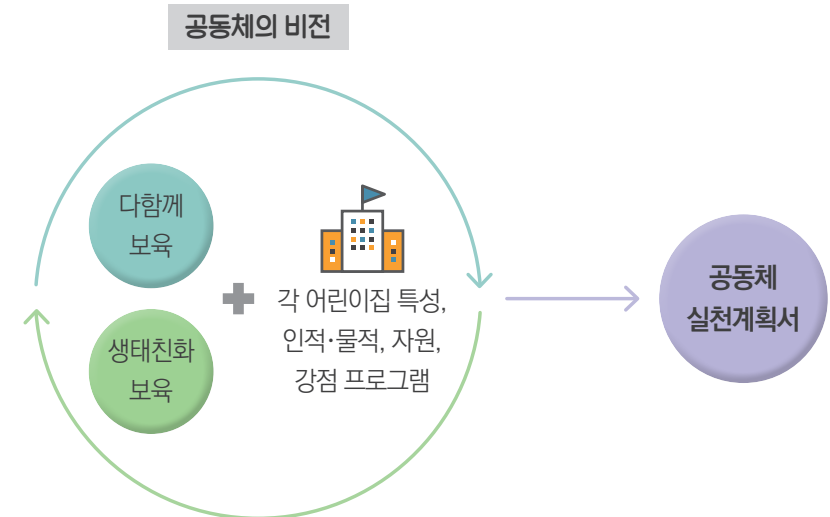
대상	내용	주관	시기
서울시 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관심 있는 모든 어린이집	- 사업 개요 - 공모 일정 및 기준 안내 - 질의 및 응답	서울시	1~2월
당해 연도 참여 공동체로 선정된 어린이집	- 사업 개요 - 당해 연도 사업 세부 내용 및 절차 안내 - 실제 운영 사례 - 질의 및 응답	서울시· 서울센터	2~3월



★ 실천 계획 수립 워크숍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연간 실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공동체는 앞으로 그려 갈 비전을 함께 수립하고, 각 어린이집의 특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강점 프로그램 등을 종합한 실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동체의 비전, 공동체의 실천 계획은 특정한 구성원에게 책임이 집중되기보다 공동체 의식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여러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실천 계획을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모여져 시야도 확장되어 갑니다.



1기~4기 공동체는 자체 회의를 통해 실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전 운영 평가와 실천 계획 워크숍 참여 경험을 고려하여 공동체 비전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5기 공동체는 실천 계획 워크숍에 참여하여 각자의 보육 철학과 비전을 서로 맞춰가며 공동체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구체화합니다.

참여자들은 효과적인 실천 계획 워크숍을 위해 사전 준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공통 지침 서류는 '어린이집별 연간계획서', 2025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신청서(2025년 실천계획서 포함)입니다. 워크숍을 통해 수립한 공동체 비전에 맞추어 2025년 실천계획(안)을 수정·보완합니다. 또한,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집별 연간계획서'에 더할 것과 빼는 것을 검토하며 수정합니다.

- 대상: 공동체 내 모든 원장 및 어린이집별 대표 교사
- 내용
 - 공동체의 비전 수립
 - 연간 실천 계획 수립 및 공동체 간 나눔
- 소요시간: 4시간



* 공동체별 BAND 가입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센터)는 공동체별 BAND를 개설하고, 가입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담당자 및 원장 연락망을 통한 BAND 가입 초대

서울센터 → 자치구센터
(사업 담당자)·원장

사업 담당자 및 원장 BAND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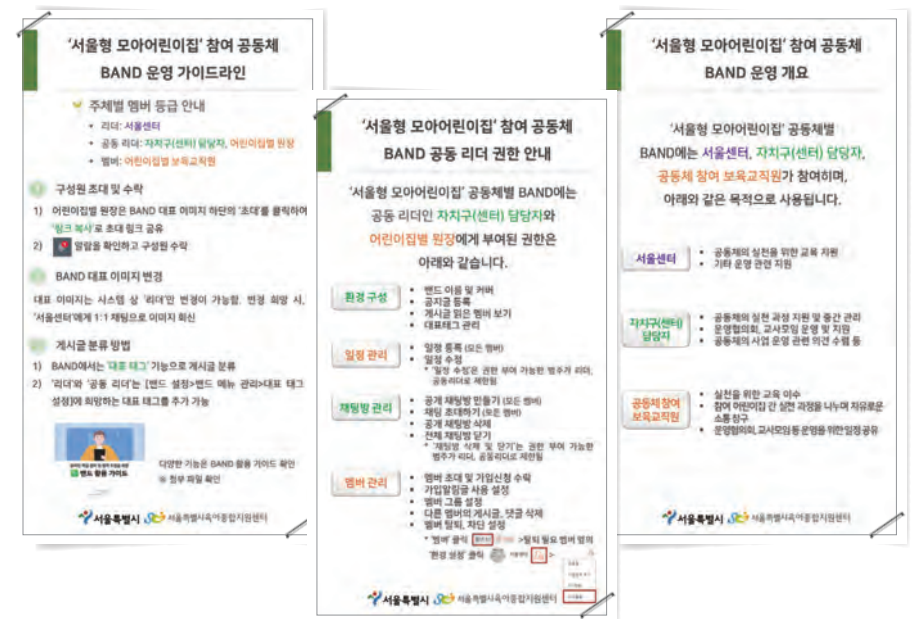
자치구센터
(사업 담당자)·원장

공동체 내 보육교직원 초대·가입

자치구센터(사업 담당자)·원장
→ 공동체 보육교직원

공동체 구성원은 BAND에 업로드된 보육교직원 교육 영상을 통해 공동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고, 일정 조율 및 실행 내용을 나누는 소통 창구로 활용합니다.

공동체별 BAND에 가입하는 보육교직원 수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공동체에서 자율 운영합니다.



3월

★ 운영 서식 안내 및 회신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 담당자가 안내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서식을 확인합니다. 이 중 기초 자료 조사 및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변화 과정 기록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현황조사서

아린이집 정보											
공동체명	아린이집명										
시설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직장 ☐ 협동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E-MAIL	전화번호										
영유아 및 교직원 현황	정원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교사	보육교사	연장	보조교사	명
※ 간 추가 가능	반수						※ 원장 제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2025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참여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공동체 BAND 가입 등 및 컨설팅 진행을 위한 정보 수집 · 사업 홍보를 위한 일과 사진 및 영상(부모 소식지, 홍보 영상, 홈페이지 사재 사진 게시 등)
수집/이용/제공 항목	성명, 소속, 보육교직원 경력 및 연락처 등
이용 및 보유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정보)의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 거부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연락처	직위 및 담당 연명
성명	(서명)	연락처: (전화)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명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명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명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명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명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명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명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명

2025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직인)

초상권 사용 동의서(만 세 아동 부모 대상)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대상으로 협력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변화 전·후 비교, 사업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상권 사용 동의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3기~4기 공동체는 신입 팀이 대상으로 요청)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참여하는 만 세 아동의 어린이집 생활에 관한 사진 및 영상 사용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내용 및 목적

사진 및 영상 사용 동의 (초상권 사용)	· 공동체 운영 지원 등 모아학습공동체 관련 컨설팅에 필요한 일과 사진 · 사업 홍보 등 서울시 홍보 일과, 일과 사진 및 영상 촬영 (부모소식지, 홍보영상, 홈페이지 사재 사진 게시 등)
보유 기간	· 사용 동의 후 사업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기간

동의 서명

이동명	관계	부모	(서명)
이동명	관계	부모	(서명)
이동명	관계	부모	(서명)
이동명	관계	부모	(서명)
이동명	관계	부모	(서명)
이동명	관계	부모	(서명)
이동명	관계	부모	(서명)
이동명	관계	부모	(서명)

○○어린이집
2025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귀하

| 목적 |

- 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원아 등 현황 조사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 협력하고 실천하는 과정과 변화를 기록하기에 앞서 교사 및 부모에게 동의 요청

| 작성 방법 |

- 보육교직원은 공동체별 BAND 가입을 위해 연락처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 부모 대상 초상권 사용 동의서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작성

4~8월

★ 보육교직원 교육

보육과정 운영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은 보육교직원이 보육과정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참여 시기에 따라 수강하게 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3기~4기 공동체]

3기~4기 공동체는 놀이 중심 보육과정과 생태친화 보육 관련 교육을 수강하여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에 공동체 운영 시 경험하는 어려움 관련하여 지원받고 싶은 교육을 수요 조사하여 개설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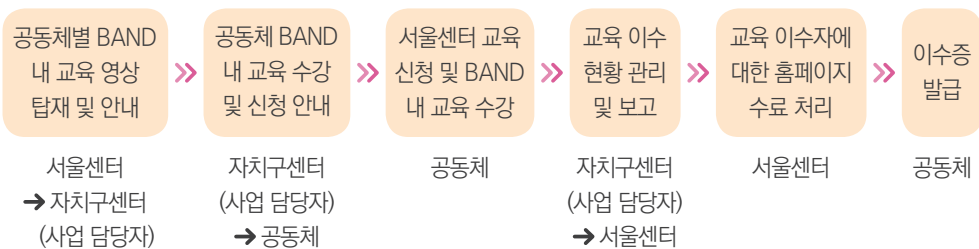
[5기 공동체]

5기 공동체는 교육을 듣기 전에, 공동체 내 어린이집이 함께 모이는 디딤돌모임을 통해 컨설팅터를 만납니다. 이러한 소그룹 워크숍을 통해 어린이집 간 학습공동체의 운영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이후 기존에 개설되었던 놀이 이해 교육과 생태친화 보육 교육 중 2종 이상 선택하여 듣습니다. 단, 소그룹 워크숍 참여자는 소그룹 워크숍(2회기) 전에 반드시 '놀이 이해와 지원을 위한 기록' 우선 수강합니다. 본 교육은 기존 공동체의 반복적인 수강 가능 요청이 있었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강의입니다.

교육을 들은 후 보육과정 및 공동프로그램 운영 시 경험했던 다양한 놀이 사례와 접목하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서로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영유아의 놀이와 보육과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수강 편의를 고려하여 공동체별 BAND에 영상으로 탑재되며, 수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강 절차 |



[공동체별 BAND에 탑재된 교육 영상]



PC 사용 시 수강 방법



스마트 폰 사용 시 수강 방법

- 대상: 공동체 내 모든 보육교직원
- 내용
 - (3기~4기 공동체) - 수요 조사를 통한 공동체 운영 시 경험하는 어려움 지원 내용
 -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자율·수강
 - (5기 공동체) - 필수 강좌를 포함한 최소 2강좌 이상 선택·수강

생태 주제

- 어린이집에서 생태적 삶 살아가기
- 밖에서 만나는 생태 이야기

놀이 주제

- 놀이 이해와 지원을 위한 기록(필수)
- 놀이와 매체의 만남

- 소요시간: 강좌별 1시간
- 방법: 공동체별 BAND를 통한 수강



함께 크는 공동체, 이어지는 배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연차별로 공동체 수가 확대되면서, 매년 신규 공동체가 들어옵니다. 신규 공동체는 개별 운영이 익숙하여 공동체 내 통합적인 보육 방향 설정, 공동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등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기존과 신규 공동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은 공동프로그램 실행 노하우의 자연스러운 전수로 이어져 신규 공동체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이에 2025년에는 ‘멘토-멘티 공동체’, ‘모아데이’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공동체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 멘토-멘티 공동체

멘토-멘티 공동체에서는 1기~2기 공동체(멘토)가 4기~5기 공동체(멘티)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멘토 공동체가 실제 경험했던 어려움과 해결 과정, 효과적인 방안 등을 멘티 공동체와 직접 소통하며 전달합니다.

1기~2기 공동체는 공동체 운영 경험을 나누고, 실제 사례를 통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멘티 공동체가 초기 운영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공동체 간 협업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4기~5기 공동체는 현재 공동체의 운영 방식을 돌아보며 스스로 점검하고, 궁금한 점을 정리하여 준비합니다. 멘토 공동체와의 만남에서는 궁금한 점에 대한 해결과 더불어, 멘티 공동체 구성원과 인사이트, 의견을 공유하며 우리 공동체만의 강점과 개선점을 찾습니다. 멘토 공동체의 조언을 반영하여 실행하고, 추가로 궁금한 점은 후속 멘토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습니다.

★ 모아데이 (자립공동체 참관)

모아데이는 1기~2기 공동체(자립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프로그램에 4기~5기 공동체가 참관하는 날입니다. 신규 공동체에게는 공동프로그램의 운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입니다. 자립공동체는 프로그램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최초 시작 시기부터 참여하여 많은 지원을 통한 성장의 계기가 되었으므로, 선배 공동체로 성장 경험의 공유를 통한 선순환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기~2기 공동체는 공동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의 검토, 보육교직원 간 역할 분담, 주요 관찰 포인트를 정하며 모아데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사전 협의합니다. 확정된 공동프로그램의 개요(운영 시간과 세부 일정 등)은 서울시 및 자치구센터, 방문하는 4기~5기 공동체와 공유합니다.

4기~5기 공동체는 각 프로그램의 선정 배경과 실행 과정, 영유아의 반응 등을 관찰합니다. 참관 후, 1기~2기 공동체와 소통하고, 관찰하며, 피드백을 나누는 과정을 갖습니다. 4기~5기 공동체는 참관 후, 공동프로그램에 참관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아학습공동체

다양한 놀이 욕구를 가진 영유아, 부모의 다양한 요구 등 영유아 및 놀이 중심 보육 과정을 실천하는 교사들에게는 많은 고민과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⁷⁾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3~5개의 어린이집이 모여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내 또는 어린이집 간 학습공동체가 구성됩니다. 이는 개정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습공동체를 통한 질 높은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 실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과정 운영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원장 역량 강화를 기초로 하여 어린이집 내 학습공동체, 어린이집 간 디딤돌모임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합니다.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간 학습공동체를 **디딤돌모임**이라 칭합니다.

모아학습공동체는 공동체 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운영협의회 및 교사모임과 별개 활동 사항입니다.

요약 정리

내실 있는 보육과정 및 공동체 운영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모아학습공동체 체계화

모아학습공동체

★ 원장세미나

원장세미나는 공동체 내 모든 원장 대상으로 진행되고, 자치구 내 공동체가 3개 이상인 경우는 2그룹으로 나뉘어 운영합니다. 원장세미나에는 보육과정 및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친 전문가가 진행자(컨설턴트)로 참여합니다.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원장은 보육과정 및 모아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나누거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영유아 관련 주제 토론을 통해 원장의 핵심 역량을 강화합니다. 원장세미나에서 공유된 실천 과제는 각자 어린이집, 나아가 모아학습공동체에서 적용해보며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컨설턴트를 포함한 원장세미나는 연 3회이지만, 자발적인 자체 운영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원장세미나 참여를 통해 학습공동체 운영 내용, 방식, 긍정적인 효과 등을 경험하고, 어린이집, 어린이집 내 학습공동체, 디딤돌모임까지 확장·운영하며 정착해갑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며 전체 보육교직원이 내실 있는 보육과정을 실현해갑니다.

- 대상: 공동체 내 원장 전체
- 구성: 그룹별 최대 15인
 - ※ 공동체가 3개 이상인 자치구는 2그룹으로 운영
- 내용
 - 영유아 관련 주제 토론을 통한 원장 핵심 역량 강화
 - 모아학습공동체 운영 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 횟수: 연 3회 이상(컨설팅 3회 포함)
- 주기: 1개월~1.5개월

7) 교육부(2020). 유아·놀이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공동체 실천 이야기. 7~8쪽.

모아학습공동체

★ 소그룹 워크숍

3기~4기 공동체

3기~4기 공동체는 연차별로 체계화된 보육과정 컨설팅 경험과 다양한 주제 교육을 토대로 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여 참여 기수에 따른 지원의 차별화를 통해 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3기 공동체]

3기 공동체는 2023년에 소그룹 컨설팅 이후 어린이집 내에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 잘 적용되고 지속성 있는 실행이 이뤄지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참여하였습니다. 그 동안 축적된 보육과정 컨설팅 경험을 기초로, 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자율적인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자생력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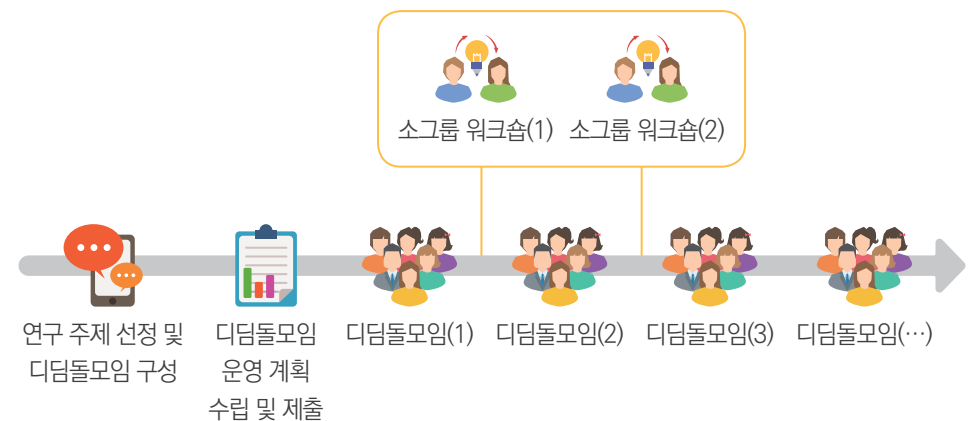
교사의 자율적 모임인 디딤돌모임은 보육과정 주제 연구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공동체 내 어린이집별 교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구성원은 보육과정 관련 고민을 나누며 함께 풀어갈 주제를 선정합니다. 연구 주제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구성원의 보육환경과 상황에 따라 생기는 고민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연구모임은 공동체 운영 현황을 논의하는 교사모임과 구별됩니다. 이에, 연구 주제는 공동프로그램 운영 '방법'보다, 내실 있는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자의 고민에 집중하여 선정합니다.

구성원들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고민과 의견을 나누며, 혼자 보육과정을 실행해야 한다는 부담 대신 나눔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합니다.

보육전문가인 컨설턴트가 디딤돌모임에 직접 참여하여(연 2회) 디딤돌모임에서 풀리지 않았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컨설턴트의 지원 방식은 일방적 전달식 강의를 아닌 소그룹 워크숍입니다. 구성원들은 컨설턴트 지원 전 디딤돌모임을 운영하며 생긴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구체화하여 참여합니다. 만약 공동체 내 디딤돌모임이 1개 이상 운영될 경우, 모든 디딤돌모임 그룹이 함께 모여 참여하게 됩니다.

- 대상: 3기 공동체 내 디딤돌모임 참여 교사
※ 어린이집별 교사 1인 이상으로 자율 구성
(교사 지원금 받는 교사와 관계없이 구성 가능)
- 내용: 보육과정 관련 자율 주제에 대한 지원
- 횟수: 연 2회
- 방법: 소그룹 워크숍

| 진행 절차 |



모아학습공동체

[4기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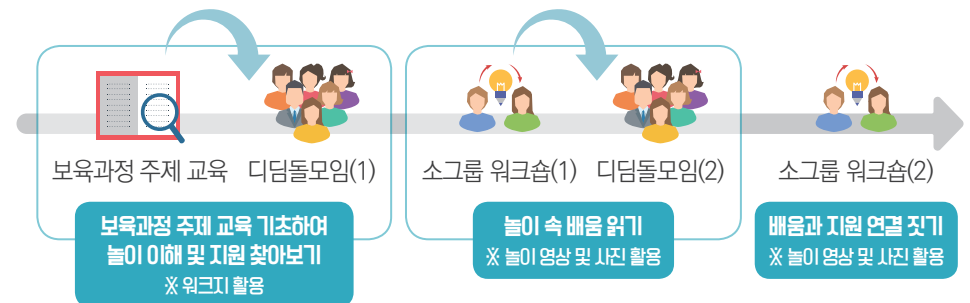
4기 공동체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서의 놀이 관찰과 기록'을 심화하여 실제 놀이 사례에서 배움을 찾고, 교사의 지원과 연결 지어 놀이 중심 보육과정 실천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 내 디딤돌모임에 보육과정 주제 교육과 소그룹 워크숍을 지원합니다.

4기 공동체 디딤돌모임은 교사 지원금을 받는 모든 교사가 참여합니다. 소그룹 워크숍 진행에 앞서 보육과정 주제 교육을 수강합니다. 보육과정 주제 교육은 소그룹 워크숍에서 진행되는 내용과 연계하여 교사가 보육 현장에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잘 실천하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보육과정 주제 교육 이후, 보육전문가인 컨설턴트가 직접 참여하는 소그룹 워크숍(연 2회)이 진행됩니다. 소그룹 워크숍 진행 후에는 공동체별 디딤돌모임을 운영합니다. 디딤돌모임에서는 소그룹 워크숍 내용을 각자 실천·적용해 본 경험을 나눕니다. 디딤돌모임에서 나누면서 생긴 궁금증이나 어려움은 이후 소그룹 워크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4기 공동체 내 교사 지원금을 받는 모든 교사
- 횟수: 4회 중 2회의 소그룹 워크숍 지원
※ 디딤돌모임은 2회 이상 자발적 운영
- 방법: 소그룹 워크숍

| 진행 절차 |



5기 공동체

5기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내 교사 지원금을 받는 모든 교사가 모여 내실 있는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공동체인 디딤돌모임을 운영합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 내 디딤돌모임에 소그룹 워크숍을 지원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소그룹 워크숍은 1개월~1.5개월을 주기로 하여 보육전문가인 컨설턴트가 연 2회 진행합니다. 소그룹 워크숍에서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서의 계획과 일지 작성을 이해하고, 관찰과 기록을 통한 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실천을 돕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원장세미나와 연계된 내용을 어린이집에서 실천 적용 시 경험했던 고민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모아학습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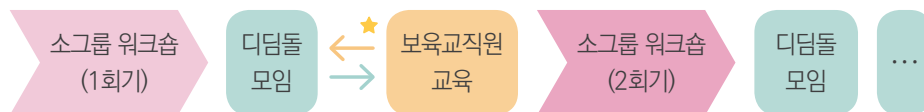
소그룹 워크숍(1회기)에서는 기존의 계획안과 일지를 점검하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서의 계획과 일지 작성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선생님들은 각자 원으로 돌아가, 소그룹 워크숍(1회기)에서 다룬 내용을 반영하여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계획안과 일지 작성을 시도해봅니다. 이후, 디딤돌모임에서는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 기초한 계획안 또는 일지를 공유하며 변화를 나눕니다. 때로는 실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나누며 서로의 노하우를 배우고, 풀리지 않은 궁금증은 다음 소그룹 워크숍을 통해 해결해봅니다.

소그룹 워크숍(1회기)과 '놀이 이해와 지원을 위한 기록(보육교직원 교육 주제)'는 상호 연관되는 내용으로, 소그룹 워크숍(2회기) 전에 우선 수강합니다.

소그룹 워크숍(2회기)에서는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교사의 지원 방향을 고민하는 관찰과 기록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선생님들은 소그룹 워크숍(2회기) 내용을 실천하고, 디딤돌모임에서 만납니다. 이 때, 영유아의 놀이 기록을 토대로 아이들의 경험(배움)의 의미를 찾아보고, 교사의 지원(계획)에 대해 나누며 함께 성장해갑니다.

이처럼 소그룹 워크숍 진행 내용은 디딤돌모임과 보육교직원 교육을 통해 더욱 탄탄해집니다. 디딤돌모임은 이후에도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 진행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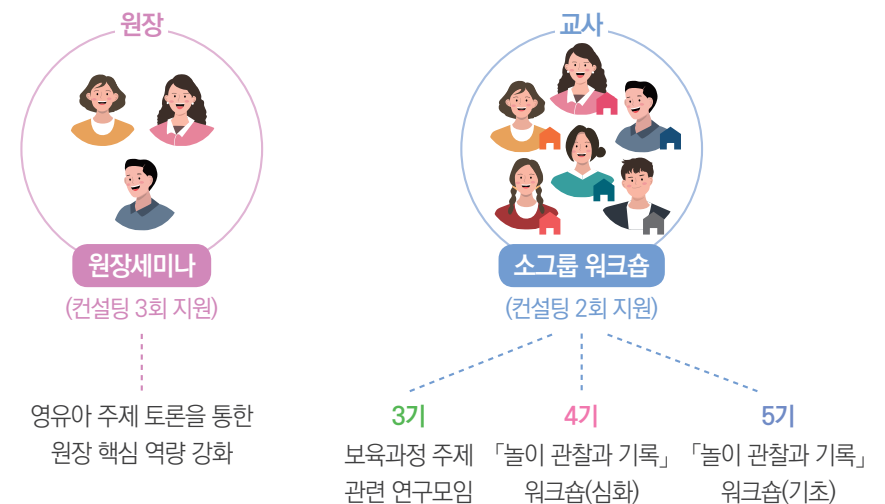
★ 디딤돌모임과 보육교직원 교육의 진행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 A 공동체: 디딤돌모임 진행 후 보육교직원 교육 수강

B 공동체: 보육교직원 교육 수강 후 디딤돌모임 진행

- 대상: 5기 공동체
- 구성: 교사 지원금을 받는 모든 교사
- 내용
 -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서의 계획과 일지 작성
 - 관찰과 기록을 통한 놀이 중심 보육과정 실천하기
- 횟수: 연 2회
- 주기: 1개월~1.5개월
- 방법: 공동체 단위의 소그룹 컨설팅

요약 정리



★ 리더모임

공동체별 대표 원장 및 교사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체 간 리더모임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는 각 공동체의 실천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보도 얻고 어려운 점도 함께 해결하는 자리가 됩니다. 사업 방향과 추진 내용에 대해 서로 논의하면서 각 공동체의 진행 내용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도 됩니다.

[리더 모임]

- 대상: 공동체별 리더 원장
- 내용: 공동체별 운영 현황 공유 및 운영 관련 논의
- 구성: 그룹별 20인, 총 4그룹



★ 사례 공유회

사례 공유회는 3기~5기 공동체 교사 대상으로, 1그룹 당 8명씩 구성되어 총 5~6회 진행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례 공유와 토론, 실천 모델의 기획과 피드백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보육교직원은 각 공동체에서 운영한 공동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사례 공유회 참여 교사들은 공동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던 공동프로그램,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이 활발했던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결한 경험이 있는 사례, 타 공동체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 등을 토대로 사례를 선정합니다.

참여 교사들은 적극적이고, 상호 존중과 경청하며 열린 자세로 참여합니다. 공동체의 사례를 평가나 비판하기보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사례를 나눈 뒤, 함께 발전 방안을 고민하여 '모아 활동'을 기획해봅니다.

참여 교사들은 공동체 업무 분장 방법, 지역 사회 내 협력 가능한 유관 기관 정보, 부모 참여 협조 홍보 방법 등 사례 운영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이로써 일방적인 사례 전달보다 효과적이고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사례 공유회]

- 대상: 3기~5기 공동체별 교사 5인, 약 300인
- 내용: 공동체별 사례 나눔, '모아 활동' 구상 및 전체 공유
- 구성: 그룹별 8인, 총 6~7그룹
- 횟수: 5회

12월

* 사업평가회(성과보고회)

그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공동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하여 내년의 계획에 반영하는 사업평가회를 진행합니다. 전체 사업평가회에 앞서 공동체별 평가회의를 먼저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리더모임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였던 설문 조사에서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 결과를 공유하고, 각 공동체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발표하며 좋은 모델을 제공하고 공유합니다.

1~12월

*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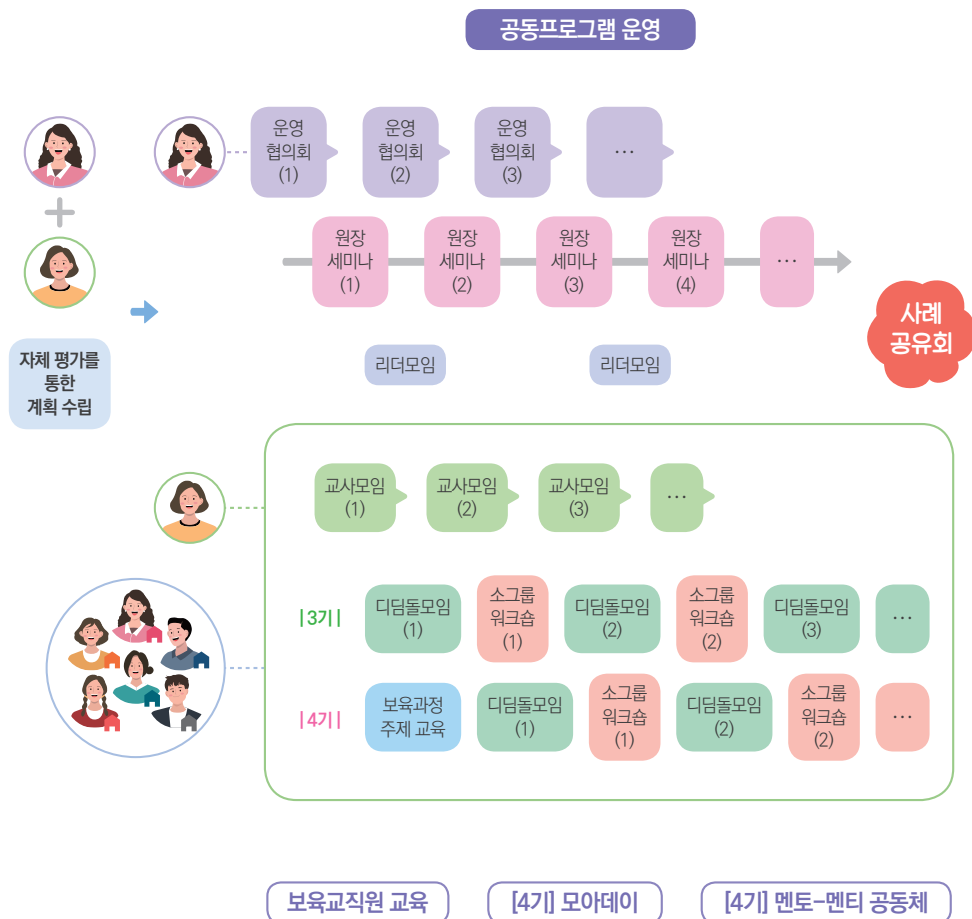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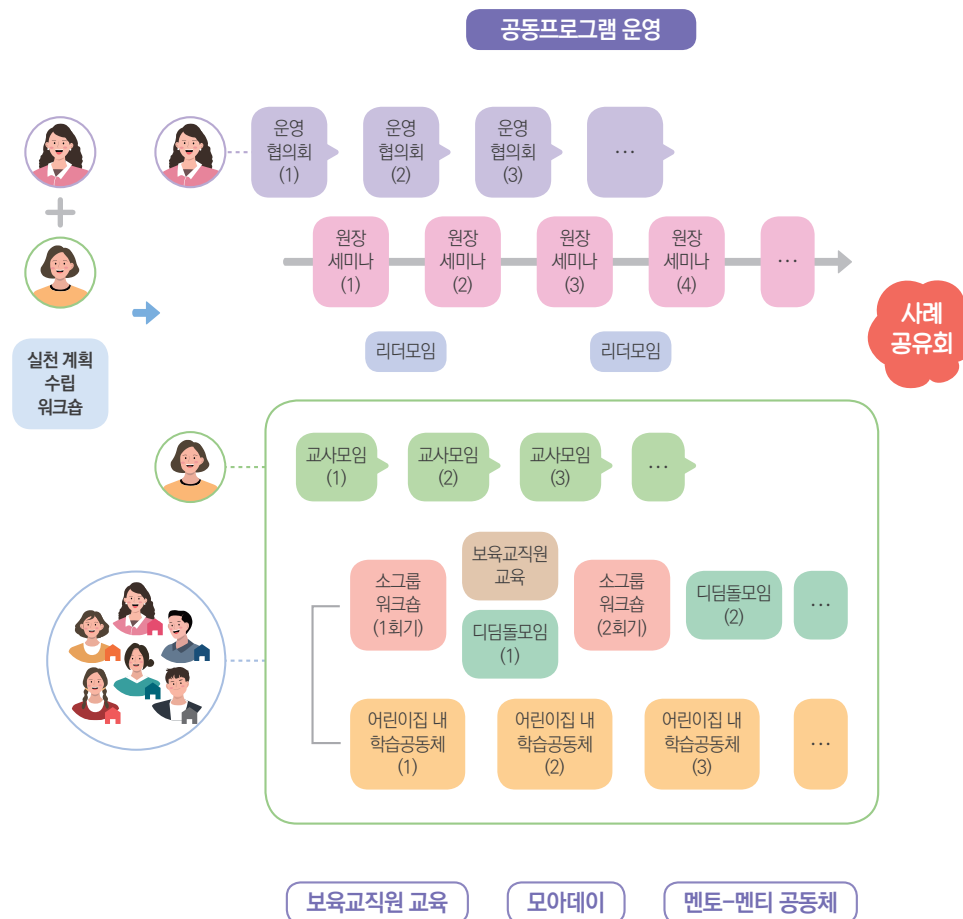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생생한 실천사례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 새로운 보육 운영 모델을 선도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상징하는 현판을 게시합니다. 각각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서로가 윈윈하는 지역네트워크-공동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되며 다른 어린이집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한 눈에 정리해봐요.

| 3기~4기 공동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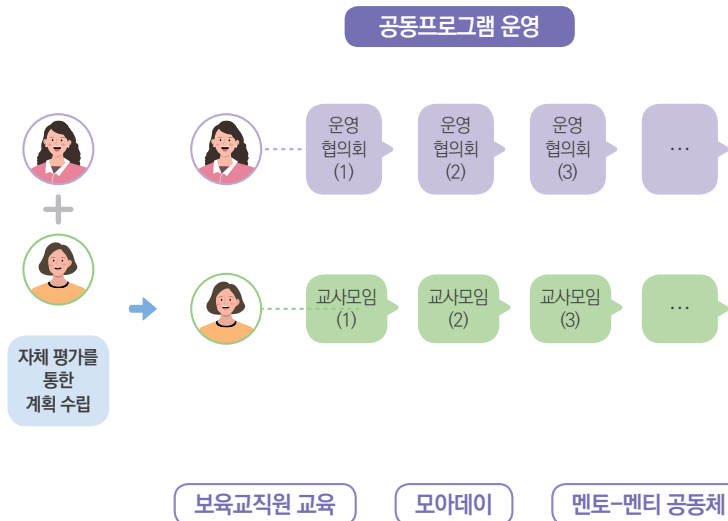


| 5기 공동체 |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한 눈에 정리해봐요.

| 1가~2기 공동체 |





본 사례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2024년 동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공동체 운영 내용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생생한 사례를 통해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공동 운영



공간 공동 활용

공동체 내 한 어린이집의 공간 또는 인근 지역사회 내 공간을 공동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간의 활용성을 높입니다.

* 우리 공간을 먼저 나누니, 같이 하는 공간이 다양해졌어요



공동체에는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 2개소와 규모가 큰 어린이집 1개소가 함께 지냅니다.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평소에도 주변 어린이집과 공간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생기니, 어린이집 내 여러 공간을 편하게 공유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옥상놀이터에 있는 텃밭, 실내 유희실 등 어린이집이 미리 약속만 한다면, 공동체 내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경험이 풍부해지며 즐거운 날들이 많아지니, 다른 두 어린이집에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 중 한 어린이집에서는 공간이 여유롭지 못하지만, 부모와 동네 산책길 등 언제든지 잠시 들러 모래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햇빛이 강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모래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도 구비합니다. 아이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맘껏 놀다 갈 수 있게 조성했습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이지만, 먼저 마음을 열어 준 어린이집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 모래놀이터를 함께 사용해요



공동체 내 한 어린이집의 인근에 있는 모래놀이터를 소개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모래놀이터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놀고 싶은 놀잇감을 골라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놀잇감은 또 다른 어린이집 친구들과 함께 사용합니다. 크고 넓은 모래놀이터에 공동체 내 모든 어린이집 친구들이 함께 모여 놀이하니 더욱 신나고 즐겁습니다.

모래를 쥐었다 놓기도 하고, 삽질하여 모은 모래를 통에 담거나 흙산을 만들며 놀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내일 또 와요!' 하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네요. 다음 번에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부모도 어린이집의 인근 모래놀이터에서 함께 노니, 아이들도 더욱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거 같다고 만족하였습니다.

* 텃밭 가꾸기를 함께 해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별로 채소 기르기를 진행했어요. 이미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처음 길러 보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해 채소 심기 관련 자료와 정보를 교류했어요.

그렇게 공동체에서는 텃밭의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텃밭을 가꾸었어요. 봄에는 상추를 심은 어린이집도 있고, 여름에는 김장 배추와 김장에 필요한 채소를 각 어린이집에서 나누어 심었습니다. 토마토가 많이 열린 어린이집엔 다른 어린이집 친구들과 함께 수확도 해보았습니다.

공동체 내 다른 어린이집의 놀이터에 방문한 아이들은 그 곳에서 키우고 있는 작물을 관찰할 수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인근 어린이집 텃밭에 방문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지렁이를 발견한 아이는 신기해하며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자랑하듯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동 운영

공동 구매

상시 사용하지 않고, 부피가 큰 교재교구는 공동 구매하여 어린이집 별로 일정을 나누어 사용하기도 하고, 단체복, 가방, 물품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합니다.

* 자주 사용하는 물품을 공유하니 일이 줄었어요



공동체에서는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면 좋을 물품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정기적으로 가장 사용하는 물품 중 하나인 생일 소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각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생일 소품 중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을 선택하여 공동 보관함에 담습니다. 공동체 내에 순번을 정해 물품을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서 매월 진행되는 생일을 즐겁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던 선생님들의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일 소품의 공동 사용을 시작으로, 어색했던 공동 운영도 조금씩 맞춰갈 수 있었습니다.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단체복을 맞춰 입었어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에서 눈에 잘 띄는 노란 조끼를 함께 맞췄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산책도 가고 숲놀이도 갑니다.

조끼를 입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친구들을 바깥에서 만나면, 노란 조끼를 보고 한 눈에 알아보며 한 어린이집 친구들처럼 반갑게 인사합니다.

똑같은 조끼를 입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친구들은 협력하여 놀이하기도 하고, 거미줄 게임에서 잘 통과하라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 이동하기 손쉬운 놀이 교구보관함을 공동 구매했어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의 보육교직원들은 매일 실외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더 맘껏 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아이들이 실외놀이 할 때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놀잇감을 좀 멀리 나가더라도 편리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바퀴 달린 보관함을 공동 구매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자주 갖고 노는 놀잇감(소꿉놀이, 천막, 악기, 책 등)과 응급구급함을 보관하였습니다.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보관함에 담기는 놀잇감은 다양해지고 있어요.

공동체 어린이집이 서로 약속한 공동의 장소에 보관함을 설치하여 공동체의 어느 어린이집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퀴 달린 공동 놀이 교구보관함 덕분에 실외놀이 갈 때 교사들은 좀 더 편리해졌고, 아이들은 원하는 놀잇감으로 더 신나게 더 오랫동안 머물며 놀이하게 되었어요.



* 통!통! 신나는 에어바운스도 함께 타요



공동체에서 공동 구매한 에어바운스를 어린이집 순서를 정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에 로켓 에어바운스가 설치되자, 환호성 지르며 반기기도 합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미끄럼틀을 타고, 방방 뛰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린이집에 가득 찹습니다. 맘껏 신체 놀이를 한 후 아이들은 더 맛있게 점심 식사를 먹는 모습을 보였어요.

공동 운영

자원 공유

한 어린이집이 소유한 자원을 공동체 내 어린이집과 함께 사용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이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차량을 함께 이용해요



공동체 내 한 어린이집이 소유한 차량을 공동체 내 다른 어린이집도 견학갈 때, 숲나들이 갈 때 함께 사용합니다. 차량이 없는 어린이집은 조금이라도 먼 곳을 나갈 때는 차량을 빌렸어야 했지만, 공동체 내 차량 공유를 통하여 더욱 자주 숲이나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 공동체 내 다른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내 감나무도 공유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 일찍 공동체 내 다른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있는 감나무가 맛있게 익었어요! 와서 감나무 따기 하실래요?' 감나무의 모습은 무르익어가는 계절을 느끼기에 좋은 기회가 되어, 아이들과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평소에 감나무 따기 체험을 하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했지만, 공동체 내 어린이집을 통해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바구니가 달린 기다란 장대를 이용하여 감나무를 살살 흔드니, 무르익은 감이 툭!하고 떨어져 바구니에 담깁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주변에 서서 '선생님 조금만 더 이 쪽으로 해주세요!' 하며 방향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 달팽이를 가정에도 분양했어요



공동체 내 한 어린이집에서 기르고 있는 달팽이가 낳은 알을 공동체에 속한 다른 어린이집에도 분양하여 함께 기르기 시작했어요.

달팽이를 보여주자, 아이들은 '우와, 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크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다!' 하며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에 신기해했어요. 텃밭에 심은 상추도 직접 수확하여 달팽이의 먹이로 주고, 함께 산책을 나가며 챙겨요.

달팽이가 또 알을 낳자, '집에 가서 키우고 싶어요!' 하며 원하는 아이들의 가정으로도 분양하게 되었어요. 다른 어린이집의 동·식물을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키울 수 있게 되니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더욱 많아졌고, 한 공동체라는 생각도 더욱 커져갑니다.



보육 전문성

어린이집 간
프로그램
공유 및 실천

동일한 주제와 매체를 활용하여 각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보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사도 영유아도 더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합니다.

* 공동체 내 어린이집이 모두 모여 인사하고, 봄 산책을 했어요



공동체에 속한 4개 어린이집 중간에 위치한 아파트의 넓은 공용에 모여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친구들이 설레는 인사를 나누었어요. 가는 길에 아이들은 작년에 만났던 친구들을 기억하며 '○○ 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겠다!' 하며 기대하는 모습도 보여요.

인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근 공원으로 함께 산책합니다. 인근 공원은 4개의 어린이집 중간에 위치해 있어 모여 이동하기에도 쉽습니다. 친구들은 삼삼오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하며 어울립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친구들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며, 서로 다른 어린이집이 아닌 함께 하는 '우리 어린이집'이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 체인지 데이 '플레이 그라운드'를 운영해요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3개 어린이집은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되고 나니,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도 3개가 되었어요. 각 놀이터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홀라우프, 비눗방울, 보물찾기 등)를 정하였어요. 아이들은 평소 놀이하던 놀이터가 아닌 다른 단지 놀이터를 간다는 생각에 들뜬 모습을 보였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게 부모들도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비눗방울을 불며 뛰어 놀고, 꼭꼭 숨겨 있던 보물도 함께 찾으며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실외장소에 놀러 가서 부담이 되기도 했던 교사들은 부모들과 함께 하니 조금 더 여유롭게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부모들도 여러 어린이집이 함께 모여 노니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 함께 전래놀이를 했어요



공동체 내 영유아들이 함께 모여 전래놀이를 했어요. 딱지치기, 술래잡기, 세세세 등 다양한 놀이를 했어요. 때로는 팀을 나눠 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아이들은 '우리 팀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큰 소리로 응원하고, 이기면 부둥켜안고 빙글빙글 돌며 승리를 만끽했어요. 우리 어린이집만 놀이할 때보다 다른 원의 더 많은 친구와 함께 하니 아이들도 신이 나 보였습니다.

* 어린이집 앞 마당이 커다란 스케치북으로 변신했어요



공동체 내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마당에 아이들이 모여 분필 놀이를 하였어요. 바닥에 그림 그리며 놀았던 경험이 없던 아이들은 처음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선생님이 '비가 오면 바닥에 그린 그림은 지워지니, 마음껏 그려도 되요~'라고 알려주니, 색색깔의 분필을 골라 그림 그리기 시작합니다.

넓은 앞마당을 이 곳, 저 곳 누비며 친구 얼굴, 아이스크림, 별 등을 그리고, 멘홀 뚜껑도 알록달록하게 색칠합니다. 아이들이 한참 머물다가 떠난 자리에 활기가 더해집니다.

* 날씨에 관계없이 매일 밖에 나가 놀아요



아이들은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바깥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며 즐깁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준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바깥에 나갑니다. 장화를 신으니,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에 발을 푹푹이며 맘껏 즐기며 걸어갑니다. 우비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귀 기울여 듣던 아이들은 마치 노래 같이라며 신기해해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가 떨어진 낙엽을 흠뻑리며 온몸으로 즐깁니다.



* 매일 가는 숲 놀이, 이제 우리만의 아지트가 되었어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친구들은 매일 매일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숲에 놀러 갑니다. 울퉁불퉁한 모래바닥을 따라 올라가기 힘들었던 아이들도 매일 놀러가니 발에 힘이 생겨 쉽게 다녀요. 곳곳에 아이들이 숨겨 놓았던 나뭇가지, 물감 놀이 하던 장소 등 나만의 아지트가 곳곳에 생기기도 합니다.

다리와 발에 힘이 세진 아이들은 밧줄 징검다리를 다양하게 오르내리며 타고, 가파른 경사에 있는 밧줄다리도 도전해봅니다. 아이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소리도 질러봅니다.



* 왜 물소리가 크게 들리지?



어린이집 뒷산을 걷는 아이들의 산책길이 점점 길어집니다. 아장아장 걷는 동생반부터 씩씩하게 동생 손을 잡아주며 걷는 유아반 친구들까지 날마다 산책하니 다리의 힘도 생기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도 높아집니다. 아이들은 계절마다 날씨 따라 달라지는 산책길의 작은 변화도 읽어냅니다. 비가 많이 내린 어느 다음 날, 한 친구의 “왜 오늘은 물소리가 크게 들리지?”라는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귀를 쫑긋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물소리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찾아보며 계곡물이 흐르는 수로를 찾았어요. 물소리가 커진 이유를 비 때문이라고 스스로 알아내기도 합니다.

* 알록달록한 빛 그림자로 놀아요



공동체 내 아이들은 평소 놀이터에서 마주친 우리의 그림자, '아기 돼지 삼형제'로 진행한 그림자 동극으로 그림자에 관심이 높았어요. 그림자에 대한 관심은 햇빛과 불빛으로 이어졌어요. 공동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불빛과 그림자로 하는 어린이집마다의 놀이 사례를 함께 나누며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하기 쉬운 손전등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보고, 점차 색형광막대, 미러볼 등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발산되는 빛과 알록달록한 색깔도 관찰하였습니다. 움직이는 불빛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기도 하고, 노래에 맞춰 불빛 아래에서 춤을 추며 즐겼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린이집 구성 특성상 영아들과 지내고 있는데요,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한 달 내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놀잇감 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은 공동체 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실에 '놀잇감 없는 날'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교구장을 뒤돌려 배치하고, 책상을 모두 비우니 보육실이 넓어졌어요. 보육실에 있는건 신문지, 한지, 천 등 재활용품뿐이었습니다. 등원한 아이들은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신문지, 크고 작은 한지 조각을 지끈 위에 걸고 보육실 양끝을 이어 붙였어요. 커튼처럼 된 지끈 아래를 몸을 낮추어 움직이며 지나갑니다. 술래 잡기, 사방치기 등 다양한 전래놀이도 넓은 보육실

에서 맘껏 즐기기도 합니다.

같은 주제의 '놀잇감 없는 날'을 보내고, 공동체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 서투르지만, 차근차근 양말목 만들기를 도전했어요



공동체 아이들은 여러 색깔의 양말목 중 원하는 색깔을 골라 손가락 힘을 조절하며 직조기에 지그재그로 끼워 보고, 열기설기 꼬아 나만의 장식품을 완성하였습니다. 혼자 만들기 힘들 때는 선생님에게 '여기 좀 잡아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위에서 아래로 올려볼까?', '선생님이 여기 잡아줄게, 해볼래?' 하며 선생님과 호흡을 맞춰가며 장식품을 완성하니 뿌듯합니다.

* 우유곽, 상자 등 재활용품으로 놀이해요



아이들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모은 재활용품으로 다양하게 놀이하고 있어요. 우유곽으로 피라미드처럼 아래에서부터 위로 점점 좁게 만들어 보고,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높이 쌓은 뒤, 중간 상자를 빼며 무너뜨려보기도 합니다. 긴 상자는 신체 매트 아래에 끼워 또 다른 통로를 만들어 놀이를 변형합니다. 숨바꼭질하던 아이는 상자 밖으로 보이는 손가락을 눈치 채고 상자 뚜껑을 열어 친구를 찾아냅니다. 너무 빨리 찾아내 아쉬움도 잠시, 장난스럽게 웃으며 어울립니다.

* 이제 잔반 없이 먹기가 익숙해요



탄소 중립 캠페인의 일환으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공동체에서 1년 이상 지속하고 있어요. 보육실에서는 손 씻은 후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 봉지 대신 다회용백 사용하기 등도 하고, 잔반 없이 먹기도 도전하고 있어요. 밥과 반찬을 직접 각자의 식판에 먹을 수 있는 만큼 담습니다. 뜨거운 국은 안전을 위해 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먹을 만큼 담으니, 잔반 없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담던 야채류 반찬도 조금씩 양을 늘려가 보기도 합니다. 다 먹은 뒤에 뿌듯하게 웃는 날도 점점 많아집니다.

* 다른 어린이집에서 산타 언니, 형이 찾아 왔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할아버지 대신 산타 언니(누나), 형(오빠)이 찾아왔어요. 산타할아버지의 큰 키, 수염으로 가려진 얼굴 때문에, 울음을 보이던 아이들도 산타 언니, 형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 저 형 저번에 나랑 같이 경의선숲길에서 놀았던 형인데!', '저번에 같이 분필 놀이했던 언니다'라며 함께 놀이했던 추억을 되새기니 반가운 마음도 커집니다. 산타 언니, 형은 공동체 내 동생들을 위해 준비해 온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징글벨, 루돌프 사슴코 등 즐겨 듣는 크리스마스 동요를 불러주고 간단한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보육 전문성

학습공동체 등 운영

어린이집별 동일 연령 담당교사나 신입, 경력교사 등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교사들이 다양한 구성으로 모여 놀이를 경험하고 연구하는 등 놀이 실천을 연구하고 나누는 모임을 진행하며 교사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 학습공동체를 통해 영유아,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실천해요



선생님들은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가져 공동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연간 계획안을 함께 작성하고, 각 어린이집별 실천 가능한 내용을 계획하였어요. 상황에 따라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이전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라 부를 정도로 교류도 활발해지고, 서로 친해졌습니다.

교사들이 개설한 SNS, 공동 카페에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어려웠던 점들을 함께 고민하기도 합니다. 공동프로그램의 실천 사례는 가정에서의 활동과 함께 매달 부모소식지를 통해 각 가정에 안내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 부모, 영유아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함께'라는 인식이 두터워졌어요.

* 우리 공동체가 좋아하는 놀이 도감을 제작해요



선생님들은 우리 공동체 아이들의 실외놀이를 관찰하며 다양한 의미 있는 놀이를 발견하였어요. 공동체 내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다양한 놀이 기록이 여러 선생님과 꾸준히 공유될 수 있게 '놀이 도감'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후, 선생님들은 어린이집별 인근의 실외놀이 장소를 찾고 주변 지도를 만들고, 각 장소별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장소별로 아이들이 좋아한 실외놀이를 기록하고 나누며 구역별 놀이도감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놀이 도감은 부모소식지에도 월별 공유되니,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다.

* 연령별 교사 교육을 진행했어요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교사교육을 운영하여 아동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교사의 인권감수성을 길러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교육에서 다뤄진 여러 내용 중 '영유아 대상 의사 존중의 원칙'과 관련하여 연령별 선생님들이 모여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같은 연령대 담당 선생님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보육 전문성

상호참관을
통한 보육환경
등 정보 공유

공동체 내 각 어린이집을 서로 참관하여 보육프로그램, 보육환경, 놀이 기록, 관찰 기록 등을 함께 공유하며 다양한 사례 이해와 보육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 공동체 내 어린이집을 서로 참관했어요



공동체 내 어린이집 간에 참관하며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공동체 내 어린이집 중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참관하게 되었어요. 흥미 영역이 아닌,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재구성하는 보육실과 영아들의 자율성이 존중받고 있는 놀이 기록들을 볼 수 있었어요. 책을 통해서만 접했던 내용을 실제 실천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하니, 선생님들도 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어요. 또, 놀이중심 보육과정은 완성된 결과가 아닌, 꾸준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조언에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보육 전문성

보육교직원 지원 프로그램

일상과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찾아가는 안심상담실'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공동체에서는 '찾아가는 안심상담실'을 이용하였어요. 보육 업무로 매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 어린이집 중 주차 공간이 여유 있는 어린이집 앞으로 직접 버스가 찾아왔습니다. 안심 버스에서 생체신호로 나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설명을 들었어요. 추가 상담을 원하는 선생님은 상담 신청도 하였습니다.

* 공동체 곳곳에 소중하지 않은 선생님은 없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간단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공동체 원장은 다양한 선물이 적혀 있는 종이를 붙여 이벤트 뽑기 판을 만들고, 공동체 내 어린이집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축하합니다~'하는 인사와 함께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곳곳에 다니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벤트 뽑기 판에서 랜덤으로 뽑은 쪽지에 적힌 선물을 받기도 하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축하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선생님들도 힐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요



공동체 내 교사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캘리그래피, MBTI 교육, 공예박물관 관람, 비즈 공예 배우기, 마카주 기법 배우기 등 평소 관심있던 분야를 체험해봤습니다.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느꼈던 부담은 잠시 내려두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봅니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니, 선생님들도 내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며 한층 더 돈독해지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부모 참여

운영
위원회

공동 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신학기 어린이집 반 편성 등 공동 사안을 논의하여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 운영위원회를 진행 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함께 하는 어린이집 모든 원장들과 부모 대표들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목적과 의미,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공동프로그램도 안내하고, 부모들이 경험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요.

부모들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통해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하는 놀이에 참여하며 경험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다른 어린이집의 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 옮기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입소대기 조정은 부모들의 협조를 통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진행한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부모 간 좋은 소통 창구가 되었습니다.

부모 참여

부모교육

공동체 내 부모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양육방법을 교육하거나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의 양육 효능감 향상을 지원합니다.

* 공동체 내 어린이집이 함께 부모교육을 했어요



공동체 내 어린이집이 모여 부모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딸기고추장 만들기, 5가지 사랑의 언어 이해하기, 색채로 알아보는 심리 이야기 등 함께 진행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기질에 대한 부모교육을 진행했어요.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질 유형 테스트도 여러 어린이집이 함께 모여 구매하니, 비용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질 유형 테스트를 통해 우리 아이의 기질과 기질에 맞는 양육 방법도 알게 되니, 고민이 많았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 부모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어요



부모교육 수요조사 결과, 일상에서 마주친 위급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심폐소생술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역 내 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주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넓은 강당에 공동체 내 부모가 모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여한 부모들은 주로 육아, 부부 관계 등과 같은 주제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배우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해했습니다.

부모 참여

가정 연계 프로그램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가정에서도 공동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서울형 모아어린이집과 각 가정 간의 연계와 유대감을 더하게 합니다.

* 공동체 내 가족들과 함께 하는 놀이를 공유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안내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스킨십하기, 이불 김밥 놀이, 보자기 놀이 등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신체 놀이를 소개하자 부모들은 즐겁게 놀이하고 직접 놀이한 사진을 인증샷으로 보내왔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이 많아지니 아이들의 웃음 소리도 더 커진다고 하네요. 각 가정에서 보내온 놀이 사진은 부모소식지를 통해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공동체 내 다른 가족들의 놀이를 함께 보면서 공감하며 부모들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우리 어린이집 텃밭을 가꾸어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린이집 규모에 맞는 텃밭 상자를 마련하여 작물을 가꾸고 있어요. 텃밭 가꾸기에 관심이 많아진 아이들은 '주말에는 우리가 물을 안 줘서, 식물이 죽으면 어떡하죠?' 하며 걱정을 하였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보인 걱정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였어요. 마침 공동체 내 모든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여, 주말에 가족과 오고가며 물을 줄 수 있게 어린이집 문 앞으로 텃밭을 옮기는 방법을 생각하였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어린이집 문 앞에 양동이와 물 주전자, 그리고 텃밭이 옮겨져있어요. 가족과 산책하며 아이들은 우리 어린이집의 텃밭을 반기며 목마르지 않게 물을 주며 가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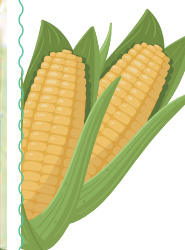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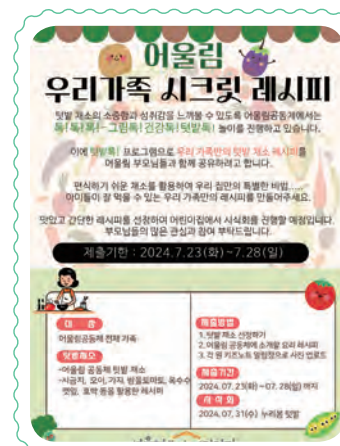
* 모아 나눔 장터, 구경하러 오세요



공동체 내 모든 어린이집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함께 모아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진행할 때보다 더 다양한 종류로 더 풍성하게 물건이 모아졌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물건도 많아졌어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지나가던 우리 동네 주민도 관심을 가지니 아이들이 먼저 다가가 우리 물건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나눔 장터에서 모은 돈과 남은 물품은 동주민센터에 기부하여 나누는 기쁨을 느낍니다.



* '우리가족 시크릿 레시피'를 공모해요



공동체에서는 월별로 작물을 선정하여 모종을 심고, 가꾸고, 수확합니다. 수확한 작물은 가정으로 보내져서, 아이들과 요리하여 먹는 시간을 보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요리한 결과는 키즈노트에 올려집니다. 덕분에 많은 레시피가 쌓이게 되었고 이 레시피 중 '우리 가족 시크릿 레시피' 공모전을

통해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 레시피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요리는 모아공동체 전체 부모에게 공유되고 하원 시간에 깜짝 시식회를 열어 직접 맛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 우리 동네, 아빠 자조모임이 생겼어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이름으로 텃밭을 분양 받았습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서 분양받은 텃밭을 안내하니, 많은 학부모가 관심을 보였어요. 텃밭 관리할 때 많은 힘이 필요했던 찰나, 아빠 자조 모임이 자연스럽게 결성될 수 있었습니다. 텃밭 인근의 정자, 비닐하우스 등에 모여 서로 소개하고 역할 분담을

하였어요. 흙을 고르고, 씨앗 심고, 잡초도 뽑으며 주변을 정리하니 어느새 텃밭이 풍성해졌습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이 풍부하여, 공동체에서는 무인 판매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나눔을 하고 모인 성금은 기부도 하였습니다.

자조모임에 참여한 아빠들은 서로에게 육아 친구가 되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도 텃밭을 가꾸며 나들이할 공간이 가까이에 생겨 좋아하십니다. 또한, 여러 아빠가 한 자리에 모이니, 공동체 내 여러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고 졸업반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입소 조정까지 되었습니다.

*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부모 동아리가 생겼어요



공동체 내 어린이집 부모가 모여 부모 동아리가 생겼어요. 우쿠렐레, 구연동화, 미싱, 손뜨개 등 부모들이 평소에 관심 있던 취미를 여럿이 모여 합니다. 재봉틀과 우쿠렐레는 공동체에서 공동구매하고, 매번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고자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나누어 보관합니다.

육아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머니들이 짬 내어 모여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공동체 내 원장은 각 동아리를 나누어 방문하여 간식도 나누어 먹으며, 부모 동아리에 활기를 더해줍니다.

부모 참여

부모 참여 프로그램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부모가 일과 중에 지원 인력이 되거나 또는 아이와 함께 보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공동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부모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 한 자리에 모여 운동회를 했어요



푸르른 하늘, 따뜻한 바람결이 좋아지는 5월에 공동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원에 펼쳐 있는 노란색, 연두색, 주황색 풍선 중 우리 팀 색깔 풍선을 빨리, 많이 모으기 위해 아이들, 부모, 조부모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바빠 움직입니다. 이 곳 저 곳으로 움직이면서 아이들, 어른과 눈도

마주치고, 미소도 띠며 친근감을 표현합니다.

잠시 동그랗게 모여 들숨 날숨하며 바빠 움직였던 몸을 쉬어줍니다. '손뼉 치고 ♪', '무릎 치고 ♪' 노래에 맞춰 아이와 스킨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운동회 시작 할 땐 다소 서먹했던 분위기도 어느 새 아이들, 어른들의 웃음 소리로 가득합니다.

*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에 아빠도 함께 했어요



공동체 내 강당이 있는 어린이집에 아빠와 아이들이 모여 놀이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평소 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 재료들을 논의하며 공통적으로 등장한 파라슈트, 신문지,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파라슈트 끝을 잡고 펠릭펠릭 흔들며 바람이 만드는 공간을 느껴보고, 아빠가 파라슈트 위에 앉은 아이들에게 바람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신문지와 풍선을 던지거나 발로 차보기, 입으로 불어 공중에 오랫동안 띄워보기 등을 하며 아빠와 함께 다양한 신체놀이를 즐깁니다. 신이 나게 놀다가 힘든 아이들은 아빠 무릎에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아빠와 아이들은 서로의 눈빛을 마주치고 스킨쉽하며 돈독해졌습니다.

부모 참여

부모 재능 나눔 | 공동체 내 부모들이 다양한 재능 나눔을 통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영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 다른 국적의 아버지가 요리를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 보았어요



공동체 내 어린이집에 있는 다른 국적의 여러 부모들이 재능 나눔 시간이 있었어요. 미국 국적, 터키 국적의 아버지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각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했어요. 미국 국적의 아버지가 알려주는 햄버거 만들기, 터키 출신의 아버지는 케밥 만들기를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보았어요. 아이들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음식으로 접하면서 즐겁게 요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 공동체 내 다른 어린이집 부모와 함께 체육활동을 해요



공동체 내 어린이집 부모의 재능 나눔을 통해 아이들의 신체 놀이가 풍성해졌어요. 발레를 전공한 부모는 공동체에 속한 어린이집들을 각각 방문하여 '가을맞이 신나는 댄스교실'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노래에 맞춰 몸을 크고 작게 움직여보고, 파라슈트를 흔들며 노래 박자에 맞춰 종이조각들을 날려보기도 합니다.





지역 네트워킹



지역 내 기관 연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기관 방문 등으로 적극 교류하고, 협력하는 연계 활동을 통하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구성원으로서 역할도 이해합니다.

* 우리 동네 파출소에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하원길을 지켜주세요



우리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골목길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의 등·하원길이 복잡해요. 공동체 내 어린이집 원장, 교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어요. 어린이집 관할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자서 의견으로 모아져, 중곡2동 파출소에 방문하였어요. 공동체의 고민을 이야기하자, 흔쾌히 등·하원길 안전 지도에 동의해주셨어요. 그렇게 중곡2동 파출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등·하원길 순찰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들도 등·하원길이 편하고 경찰관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 망가진 장난감, 고쳐 다시 써요



우리동네 마을발전소에는 장난감병원이 있어요. 장난감병원의 어른신들은 직접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의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줍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장난감을 해체하여 수리하니, 아이들은 고쳐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때론 망가진 장난감을 못 고치는 경우도 있어 아쉬울 때도 있지만 아이들은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캠페인을 했어요



공동체 내 어린이집은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모여 있어, 어린이집이 함께 만날 때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끔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있어 걱정했습니다. 공동체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 방법을 고민하던 찰나, 영등포 경찰서에서 흔쾌히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아이들과 부모, 조부모 등 함께 뜻을 하는 13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동체 내 어린이집 주변을 그룹별로 흩어져 어린이 보호 구역을 알립니다. 지나가던 지역 주민들은 '아,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었구나'하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참여한 부모들은 '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되니,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어 좋구나.'하고 뿌듯해하였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담근 김장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공동체는 규모가 크고 작은 어린이집이 하나로 모여 있어요. 함께 텃밭 가꾸기를 하기로 한 공동체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텃밭 크기를 고려하여 작물을 심었어요.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파, 무와 같은 작물을,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는 배추를 심어 키웠어요. 나눠 심은 작물을 수확하여 함께 김장 담그기를 하였어요. 각 어린이집에서 따로 키운 작물이지만, 잘 자란 작물 덕분에 김장도 맛있게 되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담근 김장은 작은 용기에 담아 가정과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와 나누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네의 지역 사회에 나눔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느끼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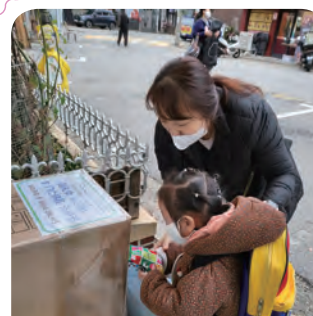
* 지구 살리기 '자원 순환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공동체에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각 어린이집이 페트병을 가정에서 모으며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실천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가져온 페트병을 담은 공간도 어린이집 곳곳에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우와, 벌써 이만큼이나 모았어!', '우리가 더 모으자!' 하며 페트병 모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은 재활용품을 동

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자, '우와 우리가 모은 페트병이 종량제 봉투가 됐어!' 하며 뿌듯해하였습니다. 이렇게 받은 종량제 봉투를 하나씩 들고 주변 산책할 때 쓰레기를 줍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 '우리는 환경지킴이!'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 공동체에서는 주변에 버려진 비닐 봉투와 쓰레기들을 주우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실천하였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높아진 아이들은 인근에 위치한 '성대골 에너지 전환마을'을 알게 되었고, 마침 진행하고 있는 '성대골 에너지 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과 종이 쇼핑백을 모아 성대골 에너지 축제에 전달 하였습니다. 전달된 에코백과 종이 쇼핑백이 성대전통시장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비닐

봉지 대신 재사용된다고 하니 아이들도 뿌듯해하였습니다.



* 환경 보호 피켓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클린 워킹 데이를 진행해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부모들과 아이들은 공원에 모여 길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날을 정해 'smile 문래, 지구를 살리자!' 환경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은 함께 지구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택배박스 등 재활용품을 활용해 피켓을 꾸미며 적어

보았어요. 이렇게 직접 꾸민 환경 보호 피켓을 들고 나가 캠페인에 참가하였어요. 쓰레기 줍기를 꾸준히 하면서 이전보다 쓰레기가 많이 줄은 것을 보고 '어? 우리가 쓰레기를 주워서 그런가, 쓰레기가 하나도 없네?!' 하며 뿌듯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와 동행하였지만, 윗 연령반 아이들은 함께 가는 동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작은 손을 내밀며 챙기기도 했습니다.

* 우리 동네 어르신과 텃밭을 함께 가꾸어요



공동체 내 어린이집 한 곳에서 참여하고 있던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어린이집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1주일에 1번씩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어르신과 함께 텃밭을 가꾸니 몰랐던 식물의 이름도 알게 되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지렁이, 배추벌레, 무당벌레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텃밭에 심은 식물에 대한 지식도 점점 많아집니다. 할아버지가 꽃잎을 떼고 안을 벌려 보여주며 꽃의 특징들을 알려주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지역 네트워킹



지역 공간 활용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함께 지역사회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교류를 활발히 합니다.

* 진짜 시장에서, 진짜 시장놀이를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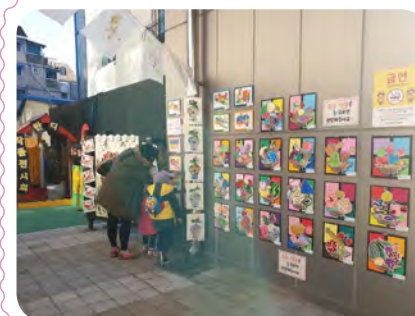


우리 공동체는 시장을 중심에 두고 어린이집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어, 오고 가며 시장 상인들과 자주 마주칩니다. 이에 공동체 보육교직원은 점차 돈의 개념, 사고팔기에 호기심이 높아지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차나, 시장 상인들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의 도움을 받아 아동 친화 상점을 10곳 정도 선정하고, 시장놀이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미션지를 뽑고, 호박전 만들기 등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시장 곳곳에 다니며 구매합니다.

시장상인회와 함께 고민하여 만든 종이 돈을 내며 실제 물건을 구매하니 아이들의 표정에도 활기가 가득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방문해서 어리둥절하던 시장 상인들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사과를 골라주기도 하고, 메밀묵을 건네주기도 하며 인심이 더해집니다.

시장 놀이를 마무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함에 기부도 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 가을 맞이 모아 미술관을 개최해요



아이들은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매일 매일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공원에 나갑니다. 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끼니 표현하는 방법이 풍성해졌어요. 가을을 맞이하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표현을 부모와 우리 동네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모아 미술관'을 개최하였어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아이들의 그림을 전시하려고 하니, 동주민센터에서도 흔쾌히 광장에 자리를 개방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말을 듣고 들뜬 모습을 보였어요.

아이들의 그림이 어린이집 놀이터 벽면, 동주민센터 광장에 게시되자, 부모, 동네 주민들이 오고가며 살펴보았어요. '아이들의 감성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전시회가 좀 더 길게 진행되면 좋겠어요.'라며 모아 미술관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01 신학기 입소 공동 조정



개별
어린이집

재원 여부
조사
(9월 말 ~ 10월)

재원아 대상으로
'재원아 희망 여부'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

신입 원아
모집
(11월)

재원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신입 원아 모집 안내

신입 원아
확정
(2월)

시스템 상의
신입 원아 확정
및 안내

다음 연도 반 편성
구성 및 확정
(2월 말)

다음 연도 재원 현황을
고려한 반 편성 구성
및 확정



1. 내년 반편성 조정
2. 운영위원회 운영
 - 공동체 내 어린이집 소개
 - 내년도 운영 변경 사항 안내

공동체 내 입소 현황
공유를 통한
입소 대기 공동 조정

※상위의 절차는 어린이집 및 공동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각 어린이집에서는 당해 연도 9월 말~10월부터 다음 연도 계획을 위한 영유아의 재원 여부를 조사합니다.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령별 반편성을 조정하고, 신입 원아 모집을 안내합니다.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하여 신입 원아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 반편성을 구성하여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 특정 연령의 반 확대(만 3~5세 혼합반 확대) 또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반 편성(가정: 영아, 국공립: 유아 중심), 입소대기 현황 및 상위 반 올라갈 재원 영유아 수 고려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체 내 어린이집을 소개하여, 그간에 함께 운영하였던 공동프로그램도 소개하며 공동체 내 입소 이동 시 장점을 안내합니다.

신입 원아 확정 후 어린이집별 입소 현황을 공유하고, 입소대기한 영유아가 초과한 경우 다른 어린이집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동 조정합니다.

사례 1

2021.10.

구분	A 어린이집 (국공립)		B 어린이집 (가정)		C 어린이집 (가정)	
반연령	21년	22년	21년	22년	21년	22년
만 0 세	미운영	미운영	3명	3명	6명	9명
만 1 세	10명	미운영	10명	10명	5명	10명
만 2 세	14명	14명	7명	7명		
만 3 세	14명	22명				
만 4 세	17명	18명				
만 5 세	18명	18명				
총정원	77명	76명	20명	20명	11명	19명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3개 어린이집은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만 0~2세를 공통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① 동일한 영아가 입소 대기를 중복 신청한 경우가 있어 어린이집별로 반 편성을 분배하기로 원장 간의 협의하였습니다.

② 원장은 교사와 면담을 통하여 다음 연도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유아반 위주로 운영될 경우의 좋은 점과 우려점을 논의하며 다음 연도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어린이집에는 영아 위주(만 0세, 만 1세)로 반 편성을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만 2세 반부터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이미 입소 대기를 한 부모의 양해와 재원 아동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여 운영 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반 편성 조정을 통해 입소대기 기간 단축이 가능해지고, 공동체 내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공동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안내하니 흔쾌히 동의해주었습니다.

사례 2

2022.3.



신입 원아 확정 후, ① 민간어린이집에 만 1세 반의 입소 대기 인원은 초과하였지만, 만 3세 반은 유아 수가 부족하였습니다.

② 원장은 상시 소통 창구를 통해 입소 현황을 공유하며 어려움을 나누자, 마침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만 1세 반의 영아 수가 부족하였고, 만 2세 졸업반 학부모로부터 빠르게 입소 가능한 어린이집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③ 두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에게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장점과 어린이집 특성을 설명하며 입소 조정을 안내하였습니다.

입소가 보장되고, 질 높은 공통된 보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 부모는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 상담 후 입소 확정을 진행하였습니다.

02 상시 입소 공동 조정

개별
어린이집

- ✓ 신학기 입소 확정 후 입소 대기가 남아 있는 경우
- ✓ 중간 퇴소하는 영유아가 생긴 경우
- ✓ 폐원하는 경우

공동체 내
어린이집 간
입소 대기
현황 공유부모에게
공동체 내
입소 정보 제공정보 제공 받은
어린이집에서
입소 상담 진행
※부모 동의 하에 진행공동체 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입소 확정
여부 결정

※2021년~2022년 공동체 사례를 토대로 정리된 내용으로 공동체별
상황은 다양할 수 있고, 절차는 공동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어린이집은 신학기 입소 대기 완료 후에도 연중 입소 확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1년~2022년 공동체에서는 3가지 사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 신학기 입소 확정 후 입소 대기가 남아 있는 경우, 2) 중간 퇴소하는 영유아가 생긴 경우, 3) 폐원하는 경우와 같이 개별 어린이집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공동체에서 함께 해결합니다.

공동체 내 어린이집 간 입소 대기 현황을 공유하여 입소 가능한 어린이집을 확인합니다. 입소 가능한 어린이집이 1개소 이상일 경우, 정원 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부터 추천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때 하나의 공동체로, 공동 운영함으로써 갖는 장점을 설명합니다. 때로는 미리 어린이집 내 반편성 조정 후 입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모는 정보 제공 받은 어린이집에서 입소 상담을 진행하고, 입소 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2022.4.



① 민간어린이집에 만 1세 반에 영아 1명이 입소 대기를 신청했지만, 반 증설을 통한 입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② 이에 공동체 내 원장에게 입소 가능한 어린이집을 묻자, 다행히 가정어린이집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③ 입소 대기 신청한 부모에게 연락하여 가정어린이집 정보와 등·하원 차량 공동 이용의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 인근에 있고, 이 중 민간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고,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2개소에서 일찍 등원하거나 늦게 하원 해야 하는 영유아는 민간어린이집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등·하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민간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하더라도 공동체로써 다양한 자원과 공동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쉽게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2

2022.5.



① 공동체 내 한 어린이집에 장애 영유아가 입소 대기하였지만,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장애 통합반을 별도로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원장은 공동체 내 회의에서 어려움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침 공동체 내에 있었던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이 장애 통합반 추가 개설 가능성을 확인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③ 며칠 뒤,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장애 통합반 추가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부모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비록 입소 대기 신청한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공동체라는 특성상 동일한 보육을 경험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도 가능한 점을 안내 하였습니다.

부모는 동일한 공동체 내에 있는 다른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에 다행스러워하며 입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사례 3

2022.6.



① 공동체 내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 대기한 만 3세 유아가 있었지만, 반 증설이 불가능하여 공동체 내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같은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수용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원장은 동일한 시설 유형으로 입소 조정이 가능한 점과 우리 공동체의 특징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여러 특징점 중, 동일한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하여 아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부모는 서로 다른 어린이집이지만, 같은 공동체로서 다양한 경험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해당 어린이집에 입소 상담 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4

2022.6.



① 가정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으로 만 1세 반에 대기한 영아가 입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② 원장은 부모와 면담을 통하여 어린이집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요인 중 출퇴근길에 등·하원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③ 원장은 공동체 내에 부모의 고려 사항이 충족되면서, 만 1세 반에 입소 가능한 어린이집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침 공동체 내 다른 가정어린이집에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④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안락함과 주차 공간이 있는 장점, 그리고 공동체로서 함께 어울린다는 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부모의 고려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어린이집을 소개받으니, 입소 면담 후 빠르게 입소 확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5

2022.8.



우리 공동체는 4개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정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은 공동체가 되기 전부터 수시로 교류하며 교사, 부모, 아이 모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① 가정어린이집이 운영 상의 이유로 폐원을 결정하게 되며, 원장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입소 조정 가능성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② 오랫동안 쌓아온 협력적 관계였기 때문에, 원장은 반 편성을 조정하며 가정어린이집 내 영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반을 증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영아들도 있었지만, 오래 전부터 두 어린이집 간의 끈끈한 관계를 알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특징점을 이해한 만 0~2세 영아의 부모는 흔쾌히 민간어린이집으로 입소 확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현황조사서



어린이집 정보											
공동체명						어린이집명				원장명	
시설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직장 ☐ 협동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E-MAIL						전화번호					
영유아 및 교직원 현황 ※ 칸 추가 가능	정원: 명			현원: 명			기본 보육 교사 (담당 교사) 명	연장 보육교사 명	보조교사 명		
	연령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반수							※ 원장 제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2025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참여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공동체 BAND 가입 등) 및 컨설팅 진행을 위한 정보 수집 • 사업 홍보를 위한 일과 사진 및 영상(부모 소식지, 홍보 영상, 홈페이지 사례 사진 게시 등)
수집/이용/제공 항목	성명, 소속, 보육교직원 경력 및 연락처 등
이용 및 보유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 거부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연락처	직위 및 담당 연령
성명: (서명)	연락처:	(원장)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령: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령: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령: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령: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령: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령:
성명: (서명)	연락처:	담당 연령:

2025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직인)

초상권 사용 동의서(만 세 아동 부모 대상)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대상으로 협력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변화 전·후 비교, 사업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상권 사용 동의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3기~4기 공동체는 신입 원아 대상으로 요청)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참여하는 만 세 아동의 어린이집 생활에 관한 사진 및 영상 사용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내용 및 목적 |

사진 및 영상 사용 동의 (초상권 사용)	- 공동체 운영 지원 등 모아학습공동체 관련 컨설팅에 필요한 일과 사진 - 사업 홍보 등 서울시 홍보 일환, 일과 사진 및 영상 촬영 (부모소식지, 홍보영상, 홈페이지 사례 사진 게시 등)
보유 기간	사용 동의 후 사업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기간

| 동의 서명 |

아동명:	관계:	부모:	(서명)
아동명:	관계:	부모:	(서명)
아동명:	관계:	부모:	(서명)
아동명:	관계:	부모:	(서명)
아동명:	관계:	부모:	(서명)
아동명:	관계:	부모:	(서명)
아동명:	관계:	부모:	(서명)
아동명:	관계:	부모:	(서명)

○○어린이집
2025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귀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실천계획서

공동체명	공동체	참여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비전	※ 비전은 공동체의 설립목적과 핵심 가치를 한 줄로 표현한 것으로, 실천 계획 워크숍에서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시오		
핵심 가치	※ 실천 계획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공동체 핵심 가치를 작성하시오		
공동체 추진 계획			
시기	내용 ※ 세부 내용에 따라 칸 조절하여 작성 가능	추진 내용 ※ 중복 선택 가능	비고
10월	• 신체 놀이 교구 공동 구매 • ○○어린이집: 야간 연장어린이집 공동 운영	■ 공동 운영 □ 보육전문성 □ 부모참여 □ 지역 네트워킹	
4~11월	• [기존] 교사배움공동체 운영을 통한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 실천하기	■ 공동 운영 ■ 보육전문성 □ 부모참여 □ 지역 네트워킹	
4~11월	• 어린이집 인근의 텃밭 가꾸기	■ 공동 운영 ■ 보육전문성 □ 부모참여 ■ 지역 네트워킹	
9~11월	• [신규] ○○구식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단 개선	□ 공동 운영 □ 보육전문성 □ 부모참여 ■ 지역 네트워킹	
		□ 공동 운영 □ 보육전문성 □ 부모참여 □ 지역 네트워킹	
		□ 공동 운영 □ 보육전문성 □ 부모참여 □ 지역 네트워킹	
		□ 공동 운영 □ 보육전문성 □ 부모참여 □ 지역 네트워킹	
		□ 공동 운영 □ 보육전문성 □ 부모참여 □ 지역 네트워킹	
		□ 공동 운영 □ 보육전문성 □ 부모참여 □ 지역 네트워킹	
기타			

※ 공동체 내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 프로그램 계획 시 기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기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동 계획하게 된 경우 ‘[신규]’로 표기하시오

디딤돌모임 운영 계획서

공동체명 공동체

모임 대표 ※ 소그룹 워크숍 운영 시 활용	(성명)	모임 인원	운영 주기	운영 장소	
	(연락처)				
선정 주제					
주제 선정 동기					
운영 방법 ※ 중복 표기 가능	토의 및 토론	사례 나눔	현장 답사	도서, 시청각 자료	기타
	()	()	()	()	
비고 ※ 모임에서 활용하는 자료명 작성					
차시	일시	운영 내용	다음 회차 준비 과제	운영 방법	담당자 (일정, 결과보고 등)
1차					
2차					
3차					
4차					
...					

디딤돌모임 운영 결과 보고서

공동체명 공동체

회차	일시	장소	인원
모임에서 나눈 내용			
모임 내용의 적용 방향 (공동체/원별)			
다음 계획 (일정 및 준비 사항)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실천 보고서

1. 모임 운영

연번	공동체 운영협의회				교사모임			
	회차(일자)	주요 내용	참여 인원	참석자명	회차(일자)	주요 내용	참여 인원	참석자명
총계								

2. 공동프로그램 운영

연번	유형 선택	카테고리(아래 항목 참조)	내용(프로그램명)	횟수	비고
총계					

- 항목별 세부내용을 모두 추진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월에 실시한 것에 한하여 입력
- '유형 선택'은 아래의 카테고리 중 한 개를 목록에서 선택하여 입력함.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타'로 입력 가능함
 - 항목 간의 중복 표기는 불가하며, 활동 계획 시 중점두었던 목표와 부합되는 유형 및 카테고리를 선정함
- 동일한 주제가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여러 날 진행되는 경우, 또는 어린이집별로 진행되더라도 주제별로 횟수 기재

유형별	공동 운영	보육전문성		부모 참여	지역 네트워킹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카테고리	- 교재교구 공유 - 인력 공유 - 공간 공유 - 물품 공동 구매	- 놀이프로그램 - 바깥놀이, 산책 - 공연, 인형극 - 현장학습	- 원장세미나(원간) - 학습공동체(원내) - 디딤돌모임(원간) - 교사 자체 교육 및 워크숍 - 힐링프로그램 - 상호 참관 - 교사 동아리	- 공동 운영위원회 - 부모교육 - 부모 참여 프로그램 - 가정 연계 프로그램 - 부모 재능 나눔 - 부모 동아리	- 지역 주민 재능 나눔 - 지역 내 기관 연계

3. 입소대기 공동 조정 및 자원 공유

연번	입소 조정 완료 건		반 편성 조정		차량 이용	취약 보육 공동 이용		
	인원	내용	조정	내용		인원	횟수	내용
총계								

2021년 ~ 2025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참여 공동체

자치구	공동체	자치구	공동체
종로구	부암평창다함께	양천구	이음
중구	가치		신정
	든든한 내 편		놀이
	청계천		신월다함께
용산구	푸른언덕	강서구	어울림
	원효로		신월숲속
	나누리		마곡단지내
	남산아래		다함께
성동구	반딧불		강서화곡
	무지개		소담
광진구	성수2.3		울타리
	종곡		모바기
	자양		서울형 봉제산
	라온		함께그린
동대문구	다해	구로구	다모아
	광장		구로누리
	상생		구일
	휘경		개봉아이
중랑구	답십리	금천구	도담도담
	마음모아		애지중지
	장안		그린나래
	빛나는 꿈별		지구공
성북구	운감이 있는 곳, 신내	영등포구	금천누리
	너나들이		양평동스타
	누리노리		스마일문래
	꿈땅		다함
강북구	성북천	동작구	신길
	미서모		조롱박
	SB 놀자		영통파이브
	돌곶이		대방
도봉구	수유	관악구	어깨동무
	수유 2동 우리누리		자갈자갈
	사다리		사이
	솔샘		사당투게더
노원구	우아미	서초구	더불어
	모들		부싯돌
	효자동		함께 GREEN 관악
	더누리		관악다움
은평구	놀이	강남구	놀이e음
	은하수		서초놀이자람
	노원상9아띠		아이두레
	건하자		나라찬
서대문구	우리누리	송파구	강남초록울
	꿈지락		자연노리토
	동네방네		잠실
	세모네모		위례
마포구	가재울	강동구	방이
	라온		가락숲
	마포(그림책)놀이		다빛나래
	채움놀		강동명일
	마포동-E		모두가치
	마포생태전환 이음교육		성내나루
			강일-잇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20). 유아·놀이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공동체 실천 이야기.
- 김미연, 김인설(2018). 마을지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적 경험과 의미, 그리고 한계. 문화 정책 논총. 제 32집 1호. 109~142쪽.
- 김수영 외 3인(2014). 마을공동체 형성의 인과구조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49집. 337~381쪽.
- 김승수(2023.2.22).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교육 자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김은설, 이정원, 조혜주(2020). 서초형 함께보육 법제화 방안 연구. 서초구·육아정책연구소.
- 네이버 어학 사전. 공동체(2023.4.10).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6ac65e51a9e420791a7408e6cc6fed9>).
- 이은해, 최혜영, 박주희(2003).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관점의 평가. 유아교육연구. 제 23권 제 3호. 241~259쪽.
- UNESCO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기 획 · 제 작 김선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최경화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김은하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보육사업팀장
한순자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사무관
이남정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경진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획총괄사업팀장
정애선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발 행 일 2021년 10월
2022년 5월 1차 개정
2023년 4월 2차 개정
2024년 4월 3차 개정
2025년 3월 4차 개정

발 행 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디자인·제작 하늘디자인

* 본 책자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2025년
서울형모아어린이집
매뉴얼

비매품/무료

03370



9

791193 036174

ISBN 979-11-93036-17-4